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제267호 | 2016년 7월

www.snuaa.org

news@sn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 Tel: 484-344-5500 Fax: 484-342-0222 | 발행인: 손재욱 편집인: 김정현



제 25차 미주평의원회의가 6월 24일 부터 26일까지 미주총동창회 본부가 위치한 필라델피아 근교 Plymouth Meeting 소재 Double Tree 호텔에서 열렸다.

특별히 이 회의를 위해 모교 성낙인 총장을 비롯한 네 명의 모교 본부 일행, 총동창회에서 사절단으로 두명의 부회장과 전무, 기조연설자로 오준 유엔 대사등이 참석함으로 의미있는 회의가 이루어졌다. 성낙인 총장은 축사에서 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벌이고 있는 '선한인재 장학사업'과 '천원의 식사'를 소개하며 미주동창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서정화 모교총동창회장은 이민섭 상임부회장, 류연수 부회장, 김경태 전무 등으로 구성된 특별 사절

단을 통해 동영상으로 보내온 격려사에서 미주동창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국과 모교에 대한 사랑을 함께 공유함으로 발전된 미래를 지향하자고 격려했다. 오준 유엔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핵'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북한 핵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회의를 위해 미 전국에서 참석한 13개 지부의 49명의 평의원들과 36명의 위임장 평의원들의 환영 및 소개가 23일 목요일 저녁 아리수 레스토랑에서 있었고, 24일에는 필라델피아 지역사회에도 오픈한 Brain Network Symposium이, 그리고 25일에는 평의원회의가 열려 미주동창회의 발전된 미래를 향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6일 서정화 총동창회 회장배 친선골프대회로 막을

내린 이번 평의원회의는 행사 메인이벤트 중 하나인 'Brain Network Symposium'에서 첫번째 강사 김용현 신시내티대 교수는 '글로벌시대인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분석한 후 해결책을 제안'했고 이어서, 김연호 존스홉킨스대 교수의(급작스런 사유로 하용출 워싱턴대 교수가 대신한)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한반도의 상황을 분석하며 한국이 나아갈 방향의 제시', 김영수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한미과학계의 연결과 차세대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지에

제 25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의 성료

‘나눔의 광장으로 다 함께 나가자’

대한 제안', 한창규 펜실바니아 의대 교수의 '정신병리(Schizophrenia)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최신 연구에 대한 설명'의 강연이 차례대로 발표됐다.

강연 도중 참석한 평의원들은 새로운 의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흥미를 보이기도 하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들과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함께 안타까워하며 차세대 지도자의 모델상을 제시하는 내용에 함께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감동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특기할 만한 두가지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첫째는 그동안 서류(회칙)상으로만 존재하던 'Education Committee (장학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금관리위원회' '관악'후원회' '모교발전기금위원회' '미주재단' '선한인재장학금' 등 총체적 난

맥상을 보이고 있는 장학활동을 회칙에 따른 'Education Committee(장학위원회)'로 수렴해 나가기로 하고, 현 회장을 위원장으로 장학위원회를 정식으로 조직해 모교에 보내는 장학금과 미국 내에서 사용될 장학금의 모금과 장학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둘째는 동창회 회칙에 명시된 채 거의 잊혀져 있던 동창회 설립목적 중 첫째인 'Charity'를 위해 'Charity Committee (나눔위원회)'를 신설해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눔위원회'를 조직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지식, 경험, 열정 등 모든 능력을 회원상호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동포사회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누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장학위원회와 나눔위원회에 각각 15,000 불의 예산을 책정한 26만여불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 평의원들과 미주동문 모두가 발전하는 미주총동창회의 모습을 꿈꾸게 되었다.

이외에도 각 지부를 소개하는 전야제, 미국독립전쟁의 유적지인 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al Park도 방문하고,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Amish 마을이 소재한 Lancaster도 방문하는 등 견문을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회의에 참가한 많은 평의원들은 감동과 용기를 교환하고, 미래를 함께 이루어나가자는 비전을 서울대 동창이라는 질긴 끈으로 엮어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되새기며 내년 보스턴에서의 상봉을 기약하며 제 25차 미주평의원회의를 마쳤다.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을 갖습니다.

- | | |
|---|--------------------------------------|
| 1-3 제25차 평의원회의/ 축사/ 격려사/ 기조연설 | 14 평의원회의의 수상자들/ 홀커밍데이 안내/ 수상자 |
| 3-4 김용현: 리더쉽/ 엄인호: 메가-FTA/ 기사: 서울대vs하버드 | 15 장용복 오페라산책/ 백운 교수 팔봉문학상 수상 |
| 5 정재웅 교수/타이 리/정운찬 전총리/고광국·고국화 부부 | 16-18 잊지 못할 휴가 이야기 모음/ 한선정: 건국기행 |
| 6-7 제5차 브레인 네트워크 심포지움/ 평의원회의의 상보 | 19 Saul Bellow의 작품 세계/ 박동규 교수: 청찬의 힘 |
| 8-9 평의원회의의 화보/ 손재욱 회장·윤상래 회장 환영사 | 20 신간: 이태상 꿈꾸다 죽거라/ 음악: 최은관 비발디 |
| 10 평의원회의: 전야제/환영만찬/밸리포지관광/골프 | 21-22 전무식: Hamilton/ 박준창: Angel-A/부고 |
| 11 미주 의대동창회 33차 컨벤션 | 23 이원영: 천역이라도/ 김창수: 칵테일 상식 5 |
| 12 지부: 미네소타/워싱턴주/필라/DC/남가주 | 24 장진영: 로부터 수술/ 오피니언: 오세경 |
| 13 지부: 북가주/샌디에고/시카고 | 25 이달의 사진/ 정태광: Window 10 업그레이드 |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제 25차 전국 평의원 회의

2016년 6월 24~25일 Philadelphia

성낙인 총장 축하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손재욱 회장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제 25차 평의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는 지식탐구와 인재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학들과 어깨를 견주는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대학교의 발전은 학교의 노력 뿐 아니라, 동문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곳 미주에 계시는 동문 여러분들의 남다른 애정과 헌신이야말로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무 앞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학」, 그리고 「세계와 함께하는 대학」을 서울대학교의 미래상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의·공공성·공동선(共同善)의 원리를 강조하며, 서울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하나로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선(善)한 인재상’ 정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선의지(善意志)가 충만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지식활동 또한 선의지로 충만해야 합니다. 선의지가 우리의 의지작용 전체를 관통하고 생활의 근본을 구성하도록 확립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모국의 안녕과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동문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서울대학교의 오늘이 있고 또한 미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사회의 변명과 행복에 기여하는 지성의 전당이자 지혜의 원천으로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변화는 서울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학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사회와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서울대 교수,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은 부단한 자기성찰과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가 이루어갈 새로운 미래와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미주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문님들의 지속적인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 인

서정화 총동창회장 축하

존경하는 손재욱 회장님, 윤상래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미주총동창회 임원님들과, 각 지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평의원 여러분!

제25회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미주 지역은, 1946년 통합개교이후, 서울대인들이 최초로, 해외 동창회를 조직한 곳입니다. 미주 전역을 아우르는 활발한 동창회 활동은, 다른 해외 동창회의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모교를 향한 사랑을 품고, 동문과의 우애를 다지면서, 미주사회에서 활약해 오신 여러분들께, 경의와 우정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정위원님들은 회보의 디자인과 컨텐츠를 개선을 해서 관심과 참여를 높여주셨습니다

미주동창회는, 지난해 손재욱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더욱 치밀하게 조직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손 회장님께서, 회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관악세대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셨습니다. 이성숙 재무국장께서는, 회계시스템 개발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셨고, 김정현 미주총동창회보 편집위원장님과 정홍택 주필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은, 회보의 디자인과 컨텐츠를 개선해, 관심과 참여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난 한 해 미주 총동창회는,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충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로패를 수상하시는, 12개 지부 전 현직 회장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부조직으로부터 비롯되는데, 막중한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미미했을 때부터, 힘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한국인, 특히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오늘의 업적을 이루신 여러분들이 없으셨다면, 오늘의 미주총동창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성취를, 모교 후원, 후배 지원, 동문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같은 서울대인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35만 동문 모두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미주 총동창회로부터 표창패를 수여 받으시는, 두 분 동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종수 동문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셨고, 2013년에는 약 2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하여, 모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합니다. 이수호 동문은, 미국에서 31년째 한의원을 경영하시면서, 미국사회에 한의학을 널리 보급하시어, 모교와 조국의 위상을 높이신 분이라 하십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두 분 동문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초일류 대학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활발한 동문조직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문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학교가 발전하고, 그렇게 배출된 우수한 후배들이, 다시 동창회의 일원이 되어 동문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모교와 후배들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서울대학교에도 갖춰져야 하는데, 미주총동창회야말로, 그러한 역할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뒤, 동문 조직을 재정비해 동문들의 뜻을 모으고, 재정을 효율화해 지난해에만, 장학금 중심으로 4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분들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는 1895년 개학과 1946년 통합개교 이후, 줄곧 국가의 중추에서, 민족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도자들을 배출해왔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적인 불황과 불안정이 심화되는 때일수록, 서울대인에게 주어지는 책무는, 더욱 엄중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여부도, 바로 오늘날, 서울대학교와 후배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교를 향한 사랑은, 곧 조국을 향한 충정과 통합니다. 미주총동창회가 앞서 보였던, 그 사랑과 충정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든 서울대인에게, 널리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총동창회장으로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면서, 미주총동창회의 발전과, 동문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서 정 화



25일 토요일 저녁 평의원회의 만찬에서 오준 (문리대 불문과 74, 사진) 유엔대사의 다음과 같은 기조연설이 있었다.



는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호소해 왔다.

그는 이번 평의원회의 기조연설에서도 ‘유엔에서의 북한 핵문제’ 라는 제목으로 “국제적으로나 통일에 대해서나 북한 핵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대사는 “옛날부터 무기를 사용해 남의 것을 차지하는 데 주력해 온 인간은 석공에서 기관총, 폭탄이나 미사일 전투기에서 결국 핵무기까지 가지게 되었다” 라며 핵무기는 그 자체로도 위력적이지만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대기권 밖으로 쏘구졌다가 중력으로 내리쬐는 방식을 통해 가공할 살상무기가 된 현 상황에서 북한이 보여

“김정은, 이제 그만 하세요.” 올해 3월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 울려 퍼진 오준대사의 외침이었다. 당시 대북결의안이 채택된 후 이와 같이 말한 오 대사는

[기조연설]

유엔에서 본 북한 핵문제

주고 있는 핵실험 뿐만 아니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이어나갔다.

핵무기 확대를 우려한 국제사회에선 1970년 NPT 체제(핵확산방지조약)를 만들어 핵무기를 줄여나가자는 합의를 시도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이 조약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핵기술을 개발했다. 이와 달리 북한은 남한처럼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해 핵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89년 프랑스 인공위성에 의해 의심스러운 영변핵시설이 공개된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IAEA의 사찰을 거부하다 안보리의 결의 825호에 의해 94년 10월에 경수로 2기와 중유를 제공하는 제네바 합의를 이루었다가 2003년 1월 NPT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다. 동 8월에 6자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으며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으로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와 IAEA로의 복귀를 약속했으나 2006년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급년 1월 4차 핵실험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 게다가 두번에 걸친 인공위성발사를 이유로 탄도미사일실험까지 해 온 상태이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협상 카드가 아닌 자체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또한 체제를 유지해 위해서라도 북한은 핵실험을 지속하면서 자신을

BRAIN NETWORK

융합의 리더쉽



김용헌 (경영대학원 66)

최근 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화합과 협치’에 걸맞은 ‘정부와 국회의 소통’을 강조했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임에도 모두가 이를 일단 반기는 까닭은 총선 전후를 거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안팎의 기류 때문인 듯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보아온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비추었을 때 국회의 향한 화합과 존중을 언급함에 있어서라.

그러나 산적한 국내의 정치·경제 현안들로 과부하 상태인 한국호(號) 선장의 대국민 담화에서 기대되는 끈질긴 창조적 고민, 겸허한 성찰의 지혜, 그리고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반세기 가까이 외국에 살면서 대통령이 갖는 속내를 읽어내는 감각이 무디어진 필자의 탓이라고 믿고 싶다.

8년 전에 기고했던 칼럼이 기억에 떠오른다. 당시 정국의 난맥상을 풀어내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가 타임지의

커버스토리로 알려졌다. 본인의 리더십을 따라주면 한국 경제를 일류국가 대열에 진입시킬 자신이 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불투명한 경제전망을 지속시키는 바람에 국민들의 초조한 마음이 정국을 꼬이게 했지만 기다려주면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내용이다. 삶과 정치 경력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견뎌낸 성공적 최고경영자(CEO)의 면모가 돋보였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창조적 고민과 겸허한 성찰이 아쉬웠던 지도자이기도 했다.

지금은 2008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8년 전 이 전 대통령의 ‘사고의 틀’을 거의 답습하고 있다. 정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다가왔고 주변이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다는 내용이다.

6월 초 모처럼 참석한 민간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산업·기업 구조조정안’에 담긴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양업의 구조



조정 방향을 직접 듣고 발제 자료를 살펴보니 기업과 채권단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해당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린 뒤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박 대통령의 연설이 미래를 향한 방향 제시를 할 수도 없었으리라.

그러나 생각의 폭을 넓히려는 끈질긴 창조적 고민과 겸허한 성찰의 지혜가 연설의 내용에 묻어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국민의 감동과 이해를 이끌어내려면 예컨대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아이디어가 본인의 ‘창조적 정치 스타일’로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살펴볼 일이다.

1980년대 후반 풀브라이트재단 초청으로 서울대에서 1년간 강의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스타일’을 소개한 적이 있다. 과거지향, 현재지향, 미래지향을 뛰어넘는 융합지향의 리더십 스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오준 대사는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북한 같은 독재국가는 외부침입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한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핵무기를 가지려는 모든 NPT 가입국들의 북한의 전철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UN 안보리의 이번 대북제재는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고자 “지금까지의 북한 제재 중 가장 강한 단계”로 설정된 상태다.

“이런 강력한 제재를 받는 한 1년 이상 오래동안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 오준 대사는 “핵 보유로 관련되는 국가 간의 균형을 갖자는 주장도 있지만 유엔 등에서 그런 긴장 상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오준 대사는 “통일이 되려면 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 회복, 차세대 통일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얼마 전 이뤄진 서울대 통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오준 대사의 말대로 북한을 한민족으로 품고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걸 참석한 평의원들이 절감하는 연설이었다.

타일이다. 대통령의 리더십 방향과 철학은 아직도 융합지향 이전에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 대다수가 지도자들에게 주문하는 양보와 타협, 설득을 통한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정치력의 향상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정치력의 바탕이 되는 융합지향의 정치철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를 얼마나 부단히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느냐는 것이다.

융합지향의 출발점은 통섭의 이론과 그 뿌리를 같이한다. 세월호 사태를 ‘퍼펙트 스톰’으로 인식하고 국민적 대토론을 제안했던 필자는 한국호의 선장은 물론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 그것은 21세기 국가 발전전략에 걸맞은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해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융합지향의 국민적 대토론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개헌, 통일, 정의로운 경제, 청년실업 등을 주제로 하면 될 것이다

(신시내티대학교 경영대 교수
한미경제학회 회장)



임인호 (농대 57)

최근 글로벌시장에선 전례 없는 메가-자유무역협정(다자간 FTA)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메가-FTA의 하나인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아세안 10개국 참여)는 지난 2015년말에 이미 출범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12개국이 참여, 한국은 빠졌음)은 지난해 10월5일 타결, 2017년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재 여러개의 메가-FTA 협상이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메가-FTA는 다음과 같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AP), 한-중-일 FTA, 등 이다. 그중 미국과 유럽연합 (EU)간의 협상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를 빼고는 모두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메가-FTA협상의 배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패권경쟁에서 상호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

글로벌화 된 이후, 자유무역협정 (FTA)은 글로벌시장에서 경제영토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FTA회원국은 관세의 하락으로 교역 상대국에서 교역창출과 교역전환효과에 의해 교역량이 확대되는 동시에 비회원국들은 교역전환 효과에 의해 교역상대국에서 서서히 시장을 잃게 된다. 다자간 FTA는 양자간 FTA에 비해 거대 경제권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한꺼번에 참여함으로써 교역창출과 전환효과가 모든 회원국들에게서 동시에 발생하므로 양자간 FTA에 비해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메가-FTA의 확산은 글로벌시장에서의 무한경쟁시대를 의미하며 국제 경쟁은 현재보다 더 치열해 질 것이다.

이러한 경제영토확장을 위한 메가-FTA열풍 속에서, 한국은 지난10여년 간에 걸쳐 양자간 FTA 총15개 (작년말 기준, 51개국포함)를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세계10대 교역국 중 유럽연합 (EU), 미국,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 모두와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TPP참여 기회를 놓쳐, 12개 TPP회원국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한국이 양자간 FTA를 맺어 일본에 비해 시장선점 효과가 있었으나, TPP가 발효되면 10개국에서의 경제영토 선점효과가 서서히 희석될 위험에

최근 글로벌시장에선 전례 없는 메가-자유무역협정(다자간 FTA)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메가-FTA의 하나인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아세안 10개국 참여)는 지난 2015년말에 이미 출범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12개국이 참여, 한국은 빠졌음)은 지난해 10월5일 타결, 2017년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재 여러개의 메가-FTA 협상이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메가-FTA는 다음과 같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AP), 한-중-일 FTA, 등 이다. 그중 미국과 유럽연합 (EU)간의 협상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를 빼고는 모두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메가-FTA협상의 배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패권경쟁에서 상호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

[논설]

메가-FTA와 인공지능혁명: 실업 공포의 현실화?

당면한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TPP와 같은 메가-FTA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으로, 서둘러서 TPP발효 전에 가입해야 한다.

메가-FTA확산으로 인한 무한경쟁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산물 (예,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IoT), 웨어러블, 모바일, 3D 프린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을 도입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비용절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장착한 컴퓨터와 로봇이 폭발적으로 도입돼 수많은 기존 일자리는 파괴될 수 밖에 없다.



디지털혁명은 과거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창출했던 전기, 자동차 발명과 달리 인간의 일자리를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되지만, 신기술 일자리를 채울 인력은 부족해 수요와 공급간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실업률도 악화될 것은 불가피해진다. 20년 안에 세계 일자리 47%가 사라진다는 경고는 세계 석학들(예, Oxford대학, MIT대학의 연구)에 의해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기계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 혁명)에 의한 노동 대체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금년 1월 18일)에서 발표된 "일지리의 미래 보고서" 에 의하면, 전 세계 일자리 중 5년내 약 500만개 (순 감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은 사무행정직, 제조업생산직, 건설제방업직종 등 이고, 신규 직종으로 인력이 더 필요한 직종은 재무관리, 매니지먼트, 컴퓨터, 수학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맥킨지 연구소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2030년까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일자리의 약 80%가 사라진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출현으로 운전기사 (트럭, 택시, 버스 등)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교통 사고율이 감소돼 자동차 보험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3D프린터는 제조업과 운송업을 축소, 그리고 드론은 배달업을 축소시킬 것이다. 디지털 교육은 교사의 필요성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다. 그뿐 아니라, IoB (Internet of Brains)에서 비롯되는 고도의 인공지능은 화이트칼라 전문직들 (예: 회계/세무, 약사, 기자, 의사, 금융, 법률, 경제 전문직 등)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년간 회계사와 세무사 등의 수요가 실제로 8만개 이상 줄었다. 영국의 로열 बैं크 오브 스코틀랜드 (RBS)는 경비 절약을 이유로 '투자'와 '보험상품자문역' 500명을 감원,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서비스'로 대체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3월13일 보도했다.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인공지능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은 다음과 같다: 상담역(32%), 데이터 분석(24%), 비서 역(15%), 경영컨설팅(8%), 보고서 작성(5%), 웹로그 분석(5%), 로봇공학(4%) 등. 그러면 인공지능을 장착한 컴퓨터 로봇 (컴퓨터화)에 밀려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은 무엇일까?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창의적 지능을 요구하는 고학력전문직종들 (예: 동물학자, 통계학자, 사회학자, 수학자, 지리학자, 전기/원자력 엔지니어, 의사, 치과의사 등)그리고 사교적지능과 독창력, 설득력, 교섭력, 통솔력과 같은 독특한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 (예: 목회자, 경영관리직, 인사관리직, 금융직, 교육직, 변호사직 등)은 컴퓨터화가 확산되어도 실직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혁명으로 눈앞에 다가온 인공지능시대,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국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실업 공포'가 현실화될 것이 우려되는 이 때, 기술 산업에 관한 중장기적 대응 정책이나 일자리 재조정에 관한 정책 및 전략도 거의 전무 상태라는 것은 젊은 세대에 심각한 불안요소이다.

〈전 캐나다 연방경제무역위원회 수석경제학자〉

서울대 창업기업 年41조 vs 하버드 4447조

대 531명(18.8%) 등 순이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졸업생 창업자는 각각 76명(2.7%), 6명(0.2%)에 그쳤다. 출신 단과대학별로는 단연 공대 출신 창업자(1835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농업생명과학대(239명), 사회과학대(176명), 경영대(1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랜드를 설립한 박성수 회장과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창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서울대 동문 창업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세계적인 창업대학인 스탠퍼드·MIT·하버드 등의 매출과 비교하면 0.9~1.8%에 그쳤다. 대학 역사와 시장 환경, 국가 경제구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이들 대학과 비교하면 다향과 골리앗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하버드대 동문의 경제·사회적 글로벌 영향' 보고서는 하버드대 동문들이 창업해 활동 중인 벤처 (Active Ventures)가 150개국에서 14만6429개에 달하며 일자리 창출 규모는 204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하버드대 동문이 창업한 기업의 연 매출은 3조9000억

달러(약 4446조7800억원)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4위인 독일을 앞질렀다.

미국 비영리단체 코프먼재단이 올해 1월 발표한 MIT 보고서에는 MIT 동문이 배출한 기업은 3만200개로 연간 46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들 업체의 1년 매출액은 1조9000억달러(약 2166조3800억원)로 GDP 기준 세계 9위 러시아(2조970억달러), 10위 인도(1조8770억달러) 사이에 위치했다. 2012년 미국 스탠퍼드대 공대 소속 척 이슬리 교수팀과 경영대학원의 하버트 후버 교수 연구팀이 스탠퍼드대의 경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문 창업기업의 연매출이 2조7000억달러(약 3078조5400억원)에 달했다.

서울대 역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글로벌 창업대학으로 켄텀점프하기 위한 위기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종래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재료공학부 교수)는 "창업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서울대 동문기업들이 41조원이라는 성과를 낸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

[인터뷰]

USC 미생물학과 학과장 정재웅 박사

“지카바이러스, 소두증 유발 유전자 발견”



전 세계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인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밝혀낸 한인 교수가 있다.

학제의 주인공은 USC 미생물학과 학과장 정재웅(농대 78, 사진) 동문으로 지난 9일 USC 아레스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지카바이러스 인식 학술 토론회'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박사는 “지카바이러스가 소유한 10가지의 유전자 중에서 NS4A와 NS4B 2개의 유전자가 태아 소두증을 일으키는데 관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NS4A와 NS4B 유전자는 감

염자의 신경줄기세포(NSC)에 침투해 태아의 배아줄기세포가 뇌세포로 분화하지 못해 뇌 조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모교 식품공학과 출신인 정 박사는 1985년 UC데이비스 미생물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19년간 재직했으며 8년 전부터 USC 미생물학과 학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USC 이말징 패토젠 연구소 소장으로 도 활약 중인 정 박사는 USC 신경생물학 연구소(Neurobiology Lab)와 6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두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정 박사는 “지카바이러스 연구계에서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데 내년 상반기쯤 임상실험이 행해져 내년 하반기 때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카바이러스 약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한국일보 발췌>

‘우수 아시아인 아메리칸 기업인상’ 타이 리 대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판매 및 서비스 업체 SHI(Software House International)의 타이 리 (57·사진·한국명 이태희) 대표는 맨하탄에서 16일 열린 아시아인 아메리칸 비즈니스 개발센터(AABDC)의 '2016 우수 아시아인 아메리칸 기업인 50인상'의 피나클 상을 수상했다. 리 대표는 2012년 사망한 아버지의 삶의 궤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날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로스마에서 고교와 대학을 다녔다.

리 대표는 “내가 기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학을 다닐 당시였다. 돌아보면 잘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을 내린 대학으로의 오랜 여정은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됐다”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1922년 태어난 그의 아버지인 이기홍(영문과 46) 전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가난에 찌든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일본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히

리 대표는 “일본 패망 후 한국에 돌아온 아버지는 서울대 재학 중 미군정 최초의 개인 통역가로 취직했다”며 “어느 날 미군 장군이 아버지를 불러 업무를 청산하며 무엇을 해줄까를 물었을 때 아버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주저 없이 대답했고 장군의 추천으로 1948년 엘리트 칼리지에 유학 왔다”고 소개했다. <미주한국일보 발췌>

고광국/고국화 부부 동문 아이오와 대학 자랑스런 동문 선정



공대 화학공학과 동문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박사 부부가 금년도 4월 28일에 아이오와(Iowa)대학교 공대의 2016년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 (Distinguished Engineering Alumni

Academy) 으로 선출되었다.

Iowa Alumni Academy에 의하면, 금년에 두 부부 동문이 선출 된 것은 Iowa 공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고광국 박사는 재미 한인 자동차산업인 협회 회장 (1984-85)과, 재미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 회장 (1988-89)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두사람은 2009년도 서울공대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하기도했다.

현재는 손수 설립한 Chrysan Industry 에서 은퇴하고 Northville, Michigan 에 거주하며 Chrysan Industry의 사업영역에 관련된 International Conference와 Seminar, 그리고 차세대 후학들을 위한 scholarship project와 세계 명소 탐방 계획등으로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조병권(공대 64)〉

정운찬 전 총장 LA 강연



제 23대 서울대 총장과 제 40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상대 66) 전 국무총리가 6월 3일 오후 3시 옥스포드팔레스트호텔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남가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남가주총동창회 (회장 김병연, 공대 68), 월서는은행, BBCN Bank, 한국일보, 중앙일보, Sport Seoul USA, KBS, MBC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 강연회는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를 기리는 전시회 참석 및 강연을 위해 LA를 방문한 정 전 총리의 일정 중 하나로 열렸다. 로레스 한 한인상공회의소 소장, 월서는은행 유재환 회장, 남가주총동창회 김병연 회장의 축사와 나영환 가수의 축하, 김재현박사의 강사소개 및 귀빈소개가 있는 후 구경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강연이 시작되었다.

정 전총리는 불확실성의 미래경제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초과이익, 즉 이익이 많이 남으면 더 배분

할 수 있는 초과이익공유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산능력 확충,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투자와 소비를 강조하는 한편, 대기업은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자본의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동반성장, 중기적으로 교육혁신의 필수와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으로의 궁극적 통일도 강조했다.

오늘의 정운찬 전 총리의 기반이 되어준 수의학자이며 의료선교사인 스코필드 박사는 1919년 3.1만세운동과 제마리 사건 피해현장 등을 사진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리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34번째 민족대표'로도 불린다.

정운찬 전 총리는 스코필드 박사의 도움으로 중고등학교 및 모교에서 경제학 (66년 입학)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1970년 스코필드 박사가 별세하기 전까지 인생의 멘토로 관계를 유지하며 기념사업회의 의장으로서 활동하에 앞장서고 있다. 정운찬 전 총장은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사업회' 의장을 맡고 있다.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평의원회의 첫날인 24일(금) 오전 9시부터 시작된 5차 브레인네트워크 심포지엄은 여러 사회문제와 학술적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지적인 모임이 되는 밑거름이 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한국이 나아가 방향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차세대 동문들을 품고 교류하려는 동창회의 바람에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브레인네트워크 담당 부회장인 하용출(문리대 67) 위싱턴대 한국학 교수는 “동창회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인 브레인네트워크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얻어가길 바란다”며 심포지엄의 포문을 열었다.

첫번째 강연은 심포지움 당일 브렉스프트라는 폭풍이 불었던 것처럼 갈수록 요동치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논하는 시간이었다. 강단에 선 김용현(경영대학교원 66, 신시내티대 금융학) 교수는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의 시대 속에서 “한국의 상황은 태평양 가운데 뜬 섬 같지는 않겠나”고 비유했다. 낯은 산업구조에도 과잉설비가 지속되며 금융 및 실물 경제가 오랜 침체에 갇혀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더 빠르게 답습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미비한 대응력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제민주화’라든가 ‘창조경제’ 등은 현란한 구호에 불과하고, 현재 나와있는 구조조정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 4대 개혁(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중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했다. 그는 “그럼에도 현 정권은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서 남 탓만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김용현 교수



하용출 교수

“본인 자신은 개혁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개혁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장밋빛 전망을 내려놓고 함께 감내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어려운 세대를 설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려면 정의로운 경제를 일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연호 교수를 대신해 강연을 맡은 하용출 교수 또한 한국이 처한 또 다른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제 5차

브레인 네트워크 심포지움

그는 4차 북한 핵실험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남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민족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문제”라고 평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에 알리지도 않고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최초로 유엔에서 합의된 강력한 대북제재안에 적극적으 로 나왔지만 그것 또한 확실한 건 아니다. 현 정부는 성급하게 개성공단을 폐쇄 해버릴 정도로 북핵에 대해 필사적인 입 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더이상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며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자체 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이나 국제 사회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보이지 않 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대선 주자인 힐러리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북한과 조건부 협상을 하겠다는 노선을 취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그 건 한국이나 북한, 또는 일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 놓자는 입장이 다. 하 교수는 “현재 국제정치에서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어찌 다루야 할지가 큰 숙제”라고 말하며 “남한 내부에서 북한을 국내 정치를 위해 사

용하는 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모교와 미주 동문 모두가 “국가적, 미래의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교수(공대 76,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환경공학)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4명의 정임회장 중 43명이 서울대 동문인 KSEA에선 차세대 한인 과학자 양성을 위해 워크샵, 오지 아

동들에게 미국 견학을 시키는 과학탐험대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차세대에게 선배들이 롤모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직적 관계 형성으로 인해 벽을 만드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주 동문 사회의 전 세대가 융합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김 교수는 “선배들이 먼저 탁월함과 희생 정신을 겸비한 리더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저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리더를 넘어 더 좋은 리더를 길러내는 지도자, 인품 만으로도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지도자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는 “Pursuing excellence with a servant’s heart.(섬김의 마음으로 우수함을 추구한다.)”를 언급했다. “5년 앞이 아니라 20년 앞을 보고 일하며 베풀어야 한다. 공부해서 남 주자는 마음으로!”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한창규 교수(의대 75, 펜실베이니아대 정신건강의학과)는 보다 학술적인 주제로 심포지움을 풍성하게 가꿨다.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셰익



김영수 교수

스피어의 문구를 인용하며 그는 “마음만큼 인간 행위의 복잡함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라우마에 대해 언급하며 그는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의 뇌가 존재하는 건 과거의 한 외부 사건이 유전자와 뇌에 영향을 미쳐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전자 단위와 환경적 요인까지 복잡하게 상호작용해 ‘마음’이라는 정신기작이 존재하는 셈이다.

또한 그는 복잡한 정신병리 기전 연구 중 하나로 schizophrenia(정신분열, 조현병) 사례를 들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을 찾아 치료함으로써 포괄적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하에 환자 3만 6천명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유전 연구(DNA)를 진행한 결과 108개 정도의 locus를 발견했던 것. 하지만 이는 전체 경우의 수에 비하면 10%에 불과하다. 한 교수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가 다르다는 의미”지만 그럼에도 “다양성이 보편적인 것으로 수렴하는 정신병리 기전을 밝혀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네 연사와 청중 간의 대화는 점심시간 후에도 계속됐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미국의 대북 전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없을지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인문학이 가질 역할, 정신병리 기전에 대한 요인별 영향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여러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준 이번 심포지움은 모교 동문이 함께 모여 한국의 미래를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김지윤(생명과학 11) 본보 인턴기자



한창규 교수

500 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화화질)을 보내주세요. ‘이달의 사진’ 과 ‘서울대 학창시절의 사진’ 도 보내주세요. 앨범 사진을 스캔하든가, 셀폰(화화질)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은 general@snuaa.org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25차 미주평의원회의 상보

25일(토) 오전 9시 미주동창회 본부가 위치한 필라델피아 근교 Blue Bell 에 소재한 Calvary Vision Center에서 제25차 평의원회의가 열렸다. 제13대 손재욱 회장(가정 77)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연례, 교가합창에 이어, 이날이 6.25인지라 특별히 한국전쟁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필라델피아 전방남 지부회장(상대 73)의 환영사와 윤상래 차기회장(수의 62)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서정화 총동창회 회장(법대 55)은 멀리 한국에서 영상을 통해 평의원 회의의 시작을 격려했다.

오전에는 24차 평의원 회의록을 숙독하며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후에는 오전의 회의를 속개해 안건을 마쳐 상정하고 이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무엇보다 지난 1년 간의 사업 보고와 더불어 앞으로 미주동창회가 해나가야 할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진행된 회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을 담아 간략하게 요약한다.

〈오전 세션〉

▶성원 보고 전체 평의원 참석자가 152명 중 49명, 프록시(위임장) 36명이 참석해 총 85명으로 의사 표결 정족수를 넘어 정식으로 개회가 선언됐다.

▶필라델피아 전방남 지부회장, 13대 손재욱 회장 , 윤상래 차기회장(14대)의 환영사와 총동창회 서정화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박형준 섭외국장(공대 87)에 의해 제24차 회의록이



낭독됐다. 제24차 회의록은 지난 2015년 6월 20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 제24차 평의원회의의 결과다. 강영래 감사를 박영철 감사로 수정하고 통과 되었다.

▶사업보고(손재욱 회장) = 손재욱 회장은 미주동창회 회원 관리 시스템을 수월하게 만들고 회계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자 노력했던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처음엔 두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고자 했으나 한국어가 미국 소프트웨어와 충돌하는 측면이 강해 회계와 회원관리 시스템 개발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임기 끝나기 전까지 회원 데이터를 최대한 업데이트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내부감사보고(박영철 감사) = 미주동창회 지부가 1년 단위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금 보고에 관한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세금 관련 자료 정리 및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어떻게 갹신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명치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과 보강하겠다는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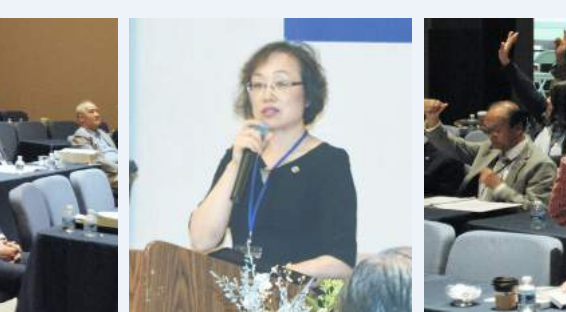
▶포상위원회 보고(손재욱 회장) = 공교가 일찍 나와야겠다는 의견과 함께 “상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감사패 등을 많이 준비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미주동창회에서 이렇게나마 보답하지 않으면 너무 죄송스러운 것 같아 포상을 많이 준비해둔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브레인 네트워크 심포지엄 평가(하용출 담당 부회장) = 미주동창회 정체성 차원에서 브레인네트워크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하 부회장은

“차세대를 가능한 한 많이 영입해 그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양질의 심포지엄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서울대 미주동창회이기에 더더욱 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동창회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히는 대로 브레인네트워크 심포지엄 또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엿보였다. 사회자인 박형준 국장은 “필라 지역 신문에 실린 브레인네트워크 안내광고를 보고 참석한 필라델피아 지역 주민도 있었다”며 차세대부터 일반인까지 많이 참여해 같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동창회보 보고(김정현 편집위원장) = 김정현 편집위원장은 회보는 동창회의 목적이 아니라 동창회의 존재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사배정에 있어서도 동창회의 목적인 Charity(나눔)과 Education(배움)을 알리고 실천하는 동문들의 활동기사를 우선적으로 취급해 왔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회보에 실린 739개의 기사중 18%에 이르는 친목 기사(연말연초파티, 음악회, 미술전시회, 아우회, 골프대회)에 비해 장학금 기사는 1.6%, 나눔에 관한 기사는 1.8% 밖에 안된다”며 동창회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했다.

전면 칼럼로 교체, 웹사이트에 잡지처럼 양면을 펼쳐볼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올리는 등 회보 자체도 여러 변화를 거쳤다. 또한 여러가지 주제로 의견들을 나누는 특집을 통해 동문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꾸준히 동문



들의 참여를 격려해 17%로 시작한 작년 7월호에 비해 5월과 6월호는 80% 이상의 기사가 동문들의 기고로 회보가 만들어졌다고 회보의 광목할만한 발전상황을 감사와 함께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논설위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좋은 필진을 확보하는 한편 전자책으로의 전환, 회원 이메일 주소 확보 등에 다각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회보에 대한 여러 질문은 회보에 대해 한층 고조된 관심을 방증했다. 오인환(문리 63) 정임회장의 “회보 발행에 10만 볼 정도가 나가는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메일 주소 활용과 웹사이트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에 이는 본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웹사이트 운영 보고(김원영 IT위원장) = 현재 12대 회장단의 요청으로 워드프레스라는 오픈소스를 웹사이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 해킹을 당한 적도 있기에 보안 문제를 보다 강화하고 앞선 의견들처럼 회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웹사이트 개발과 주소록 업데이트 등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눔사업 보고(황선희 사회봉사담당 부회장) = 교육에 대한선 장학위원회가 있는데 비해 나눔에 대한선 위원회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각 지역에서 동문들이 참여하는 나눔사업이 왕성한 데 비해 총동창회 차원에서 나눔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지부별로 가정상담소, 흑인길거리청년 사역, 탈북자들 지원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나눔위원회를 조직해 각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더욱 많은 동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능, 전문지식과 열정

등을 모아 동포사회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위싱턴 가정상담소 한정민 소장(농가정과 87) 또한 연단에 올라 나눔을 위한 후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개인 후원부터 회사의 작은 후원 등이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들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세일즈를 정말 못하지만 직접 상담을 하며 집에서 벌어지는 전쟁같은 트라우마들을 알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동창회가 이런 목적을 앞세우게 된대 대한 감사를 전했다.

▶멘토링 프로그램 보고(손재욱 회장) = 손 회장은 “인턴십 운영에 있어 비자 문제가 있는 관계로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좋은 기회를 이어가기 위해 그는 “회장 개인 단위에서라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학생들의 문의를 받는다”고 말하며 이번 여름 인턴으로 온 모교 대학신문 부편집장 김지윤 (생명과학11) 학생을 소개했다.

▶회칙위원회 보고(한재은 회칙위원장) =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평의원회의에서 의결된 회칙개정사항을 영문으로 번역해 발표했다. 사회봉사를 회칙으로 넣기로 한 결정은 회칙에 이미 Charity가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장의 권한에 따라 임원수가 달라짐으로 인해 평의원 수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재무보고(이성숙 재무국장) = 회비 운영 상황과 예산 현황, 장학금 운용 등에 대한 재무보고가 이뤄졌다. 이 국장은 “현재 예산액의 96% 회비가 들어온 상황”이며 “후원회비가 77% 증가해서 회비가 다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다음 회기의 예산이 증가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또한 모교발전기금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관악 후원금, 한국발전기금, 모교발전기금용 장학금 등 회기마다 이름이 바뀌어 혼동이 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작년도 이월금을 수익금에 넣었는지 전회기이월금이라 기재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이어졌다.

〈오후 세션〉

▶토의안건(손재욱 회장) = 1.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2. 인선위원 선출 3. 메디컬 캠페인 위원회 정제성에 대한 건의 4. 장학위원회 운영 계획 5. 한국학 위원회 운영 여부 6. 나눔위원회 운영 여부 7. 기타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1. 평의원 회의를 소개하며 손재욱 회장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간략한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Charity(나눔)과 Education(장학) 사업에 15,000불씩 배정했다”며 “9만 불로 책정된 회비수입 목표를 달성하는게 현 집행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회보 등을 통해 이미지를 부각한 덕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문들이 회비를 내고 있다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기도 했다.

〈14면에 계속〉



제 25차 전국 평의원회 환영사

회장 손재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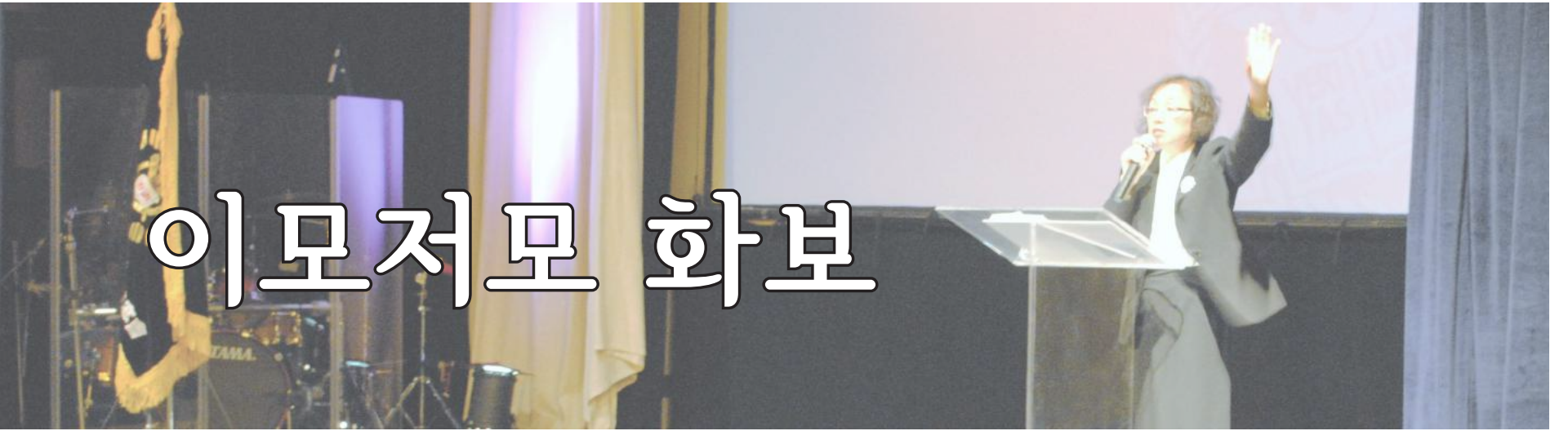
제 25차 평의원회의에 오신 평의원님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화 총동창회장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울에서 오신 서울대 총동창회 류연수 부회장님, 김경태 전무님, 성낙인 총장님과 이효원 상임이사님, 신성호 국제협력본부장님 그리고 임경훈 모교 대학신문사 주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교 서울대와 총동창회 그리고 미주동창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 조직의 발전은 곧 우리 자신의 발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주동문들이 서로 격려하며 미국 주류사회에서 활발히 움직일 때 모교 서울대와 총동창회가 같이 발전해 갈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날의 미주동창회가 있기까지 매해 평의원회 때에 발걸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회장님들과 그 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심이 있었기에 7,000여 명의 동문들이 미주동창회를 통해서 서로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회비와 후원금으로 미주동창회를 후원해 주신 많은 동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 한걸음 한걸음 도약하는 미주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13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의원회의를 통하여 참석하신 모든 동문님들이 각자가 선 자리에서 서로에게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평의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25차 전국 평의원회 환영사

차기회장 윤상래

존경하는 미주동창회 평의원님, 동문님,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성낙인 총장님, 이민섭 총동창회 부회장님, 류연수 부회장님, 김경태 전무님, 임경훈 교수님, 역사깊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주동창회 제 25차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1991년 워싱턴 DC에서 박윤수 박사님을 초대 회장으로 모시고 발족된 후 4 반세기를 넘기는 미주동창회는, 창립시의 원대한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역대 회장단들의 희생과 봉사로 그 기반이 견고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주동창회는 “21세기의 세계 주인”이라는 미주에 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동창회의 “1만여명” 동문은 미주 주류 사회의 지도자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은, 우리의 미주동창회가 크고 괄목할만한 발전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며, 우리의 잠재력을 선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잠재력을 열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창립 목적인 모교를 돕는 일이나, 우리 8,700 만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이루는데 훌륭하게 이바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성낙인 총장님과 서울대 총동창회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통해 우리 모교와, 서울대 총동창회와, 미주동창회가 협력하여 공동 활동을 펼침으로,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세계 대학 랭킹 10위권”이라는 목표를 조속히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개체가 될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또한 이러한 사명감을 통해 이 거대한 미주에 기반을 닦아 왔던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우리의 미주동창회가 27개 지역 동창회 간의 유기적인 단합과 연결로 더 큰 발전을 하여, 명실공히 “대 서울대인의 동창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필라 방문동안 부디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이에 환영사에 대신합니다.



금요 전야제



24 일 금요일 저녁 6 시부터 더블채리 호텔에서 다음 날 있을 평의원회의 전야제가 80여명의 평의원들과 가족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박형준 섭외국장의 사회로, 손재욱 회장과 윤상래 차기회장의, 전방남 필라지부회장의 인사말 후, 참석하지 못한 서정화 총동창회장의 동영상 격려사를 보았다

특pecially 이번 평의원회의를 축하, 격려해주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참석한 성낙인 모교 총장의 축사와 이효원 발

전기금 상임이사의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발표와 신성호 국제협력본부장의 모교의 세계적 순위 비교와 평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성낙인 총장은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들 800여명에게 매달 생활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선한인재 장학금'을 소개한 후, 서울대 입학후 경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복지를 후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주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특pecially 전원에 제공되는 식사는 부담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번 10월 본 미주총동창회의 모교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가하는 동문들에게 같은 점심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참가자 모두의 사진 촬영이 있을 후, 서양식 디너와 음료로 식사를 마친 후, 13 대 임원 및 편집위원들의 합창이 심회진 동문의 지휘아래 큰소리로 불려진 후 이번 행사에 가장 어린 참가자인 김지윤 (생명과학 11) 대학신문 기자(본보 썬머인턴)의 당돌 발랄한 노래와 가장 연장자인 방은호 (약대 42) 동문의 소개가 있었다. 올해 92세(24년생)인 방은호 동문은 즉석에서 팔굽혀펴기를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각 테이블 마다 주어진 퀴즈를 풀며 '서울대'로 삼행시를 만드는 등, 약간의 두뇌운동과 지적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흥이 재치있는 박형준 사회자에 의해 즐겁게 진행되고, 미주총동창회 본부에서 준비한 22개의 상품권이 다 배된 후 평의원회의의 전야제가 종료되었다.

다음은 서정화 총동창회장의 표창패와 공로패가 수여되었고 손재욱 미주총동창회장의 표창패와 지역동창회 전회장 감사패, 본부 임원 공로패 등이 수여되었다.

다음 오존 UN대사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Bridson Wallaced의 당수도 시범에 이어, 고려인 3세 Yevgeniy Dyo(텔페데)의 바이올린 연주, 소프라노 채주원 (음대 09) 동문의 가곡, 한테라(음대 00) 동문의 가야금 병창으로 이루어진 소음악회로 이어졌다. 특히 채주원 동문의 호소력 있는 폭 넓은 음색은 모든 관객을 사로 잡았고,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단가 '고고전변'을 부른 한테라 동문의 가야금 병창은 박수 갈채를 많이 받았다. 행사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를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24일 금요일 오후, 평의원회에 모인 53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Valley Forge Historic Park를 관광했다.

2016년은 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al Park 이 창설된지 100 주년(Centennial)이 되는 해이다. 공원 가이드와 박형준(공대 87) 동문의 안내로 일행은 워싱턴 총사령관의 지휘본부가 있던 Washington's Headquarters에서 그 당시 워싱턴 장군이 사용하던 유품과 가구 등을 볼 수 있었고, 광활한 벌판(5,415 mi2)에 흩어져 있는 National Memorial Arch (현충문), 독립군들이 묵던 막사 (hut)등을 관람했다.

24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생생한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일행은 푸르른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우애를 다졌다.

을 인증했다. 모두가 쟁쟁한 골프 실력을 뽐내며 제25차 미주총동창회 행사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골프대회의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1등: 성주경 남가주차기회장(상대 68), 챔피언연합: 최경선 평의원(농대65, 북가주), 2등: 이민섭 총동창회 부회장(정치학과59), 3등: 오인환 전회장(문리63, 워싱턴 DC), 장타상: 손경택 동문(농대 57, 뉴욕)과 정인식 평의원(상대58, 뉴욕), 아차상=류연수 총동창회 부회장(잡사와 67).

한편 필라델피아 동문들은 Philadelphia 라는 이름이 뜻하는 'Brotherly Love'를 몸소 실천해 자신들이 차지한 1등부터 4등까지의 상을 모처럼 방문한 타지역 동문들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음이 시상식 후 알려져 작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Northern Virginia, Washington DC에서 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의 연례행사인 Convention이 June 1-5에 열렸다.

미주 전역에서 178명의 의대 동문들과 가족까지 합해서 약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1-2일에 걸친 Pre-Convention Golf가 명소인 Lans-downe Resort에서 있었고 57명이 참가했다. 3-4일에는 Medical Scientific Session과 교양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Non-CME Lecture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강의실마다 모두 만원으로 활기를 띄웠다.

저녁에는 감사패 증정, 표창장, 수상, 축하, 장학금 지분, 공로상 수여, 여흥과 만찬, 댄스 그리고 퀴즈, 라플렛 등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되었다. 4일(61명)오후

와 5일에는(41명) Post Convention 여행이 있었는데 Capital City, Museum 방문이 있었고 Luray Cavern, 미국 3대 대통령 Thomas Jefferson 이 살던 Monticello Plantation 방문이 있었다. 여러날에 걸쳐 다채로운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온 강조웅 부부를 합해서 서울에서도 약 20명의 동문들이 참여했으며 9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오신 동아제약의 강신호 명예회장님과 두산건설의 박용현 명예회장님, 강대희 의대학장님 그리고 김용재 동창회부회장, 박종신, 조영민 부학장등이 참여했다. 특별손님으로 축사로 손재욱 미주총동창회 회장, 소설가 이영목 전회장 그리고 강사로 참석한 황보한 공학박사, 최도빈, 이규양 교수들이 우리 서울대 동문들이다.

특이할 것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세포내에서 핵이 아닌 부분의 미토콘드리아에 이변을 주는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당뇨병 발생에 대한 의대 이흥규 명예교수의 강의가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를 통하여만 전달되는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 교수의 특강은 오인환 미주총동창회 전회장의 주선으로 행사 중에는 물론 워싱턴 근교의 서울대학 동문들에게도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바이칼 호수주민들, 시베리아의 인류의 흔적, 빙하시대, 네안델타인과의 혼혈, 요하문명등 황하문명 이전의 문명의 흔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서로의 다른 종족끼리보다 유럽인과 아시아인이 오히려 가까운 핏줄이라는 유전적 사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모든 연령층이 참여했으며 최연소로 2011년 졸업, 최고령으로는 1950년 졸업하신 나수섭 동문으로 61년 사이의 모든분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한 셈이다. 의대 졸업생 중에는 미주 동창회 신문에도 글을 올려서 잘 알려진 분이 많이 있지만 이번 모임에서는 임낙중, 신상국, 김병석, 이원택, 강창욱, 나수섭님들의 저자책 소개가 있었다. 특히 90세의 나이에 지난 5월 말 발간한 "A Lone Pine Road" Atonement 를 직접 소개하신 나수섭 동문이 참석해 모든 분들을 감동시켰다.

내년에는 이 Convention이 신입 이견일 회장단에 의하여 LA에서 3월초에 있을 예정이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글: 서윤석(의대 62) 미주서울의대 총동창회장

평의원 환영 만찬



25일 토요일 저녁 Calvary Vision Center Lobby에서 Reception 및 Cocktail 파티가 있었다.

박형준(공대87) 동문의 사회로 손재욱 미주총동창회장

의 환영사에 이어 윤상래 차기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장의 격려사를 동영상으로 보았고, 전날 참석했던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축사는 박형준 동문이 대독하였다.

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 Park 관광



일요 골프



26일 일요일 오후에 서정화 총동창회장 순회배 친선골프대회가 필라델피아 근교의 Center Square Golf Club에서 필라델피아 골프동호회 한중희(공대 80) 동문에 의해 진행됐다.

저녁식사와 함께 진행된 시상식에서 성주경(상대68) 남가주지부 차기회장이 영예의 1등으로 서정화 총동창회장배 순회배를 차지했다. 전날 먼길을 달려온 서울의 총동창회 이민섭 부회장이 2등을 차지해 골프의 달인인



미네소타

: 아유회



미네소타 동문회 2016년 봄 아유회가 50여명의 동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Falcon Heights Community Park에서 4월 30일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소고기, 양념갈비, 돼지고기, 새우, 소시지 등으로 바비큐 식사를 하며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공원에서 대화와 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온 동

문을 포함 모든 동문들이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인사와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용 밀폐용기, 쌀, 키친타올, 김, 라면, 셀카봉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 여러 동문들이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어른들이 숨긴 보물들을 아이들이 찾아 그 안의 간식을 선물로 받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필라델피아

: 심희진 독창회



필라델피아 심희진(음대90) 동문의 독창회가 6월 18일 토요일 저녁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당에서 열렸다.

서울예고를 거쳐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심 동문은 도미 후 Westminster Choir College 에서 성악석사, Temple 대학에서 오페라 석사와 성악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활발한 공연활동과 Temple 대학과 Arcadia 대학에서 강의해 오고 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이날 독창회에서는 1부에서 R. Hahn, H. Wolf 의 가곡들과 Mozart의 ‘Exsultate, jubilate, K. 165’를 선사하고, 2부에서는 사랑의 마음을 담은 가곡 ‘님이 오시는지’, ‘내마음’, ‘동심초’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십자가와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초여름 밤 자리를 가득 채운 청중들의 가슴을 적셨다.

워싱턴주(시애틀)

: 세미나 안내



워싱턴주(시애틀) 동창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주최한 ‘SNU 포럼’에서 한인 생명공학 스타트업회사 ‘NSB’의 워싱턴대학(UW) 김택호(공대

대학원) 교수가 ‘급변하는 창업환경에서 재미만한 기업가들을 위한 사업화 전략과 예시’라는 강연에서 자신의 창업 경험을 나누었다.

지난해 미국 의생명공학회로부터 ‘젊은 혁신가상’을 수상한 김 교수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획기적인 세포배양 기기’를 개발해 NSB를 통해 상용화했다. 최근 비상근직 CEO로 합류한 마이클 조 변호사는 “시애틀은 ‘작은 실리콘밸리’로 불릴 정도로 아마존을 중심으로 IT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며 “아이디어, 인력, 자본 세가지 요인에 사업을 육성해줄 보육시스템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지부는 7월 세미나로 Microsoft 연구소에 근무하는 정재연 박사의 ‘스마트홈 보안및 개인정보 보호 (Security & Privacy for Smart Homes)’를 계획하고 있다.

연락처: 김재훈(공대 72) Jkim1@ieee.org
425-786-7723

워싱턴 DC

: 이민섭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워싱턴 순방

이민섭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이 제25차 미주평의 원회의를 마치고 27일 (월) 오인환 명예회장의 안내로 워싱턴 DC 지역동창회를 방문해 워싱턴 동창회 전임회장들과 안선미 현회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이 상임부회장의 뜻대로 서울총동창회와 미주동창회 및 지역동창회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SNUA 의 SYNERGY를 높여 보자는 것이 주제였다. 오는 10월 16일 (10월 셋째 일요일) 에 열리는 통합개교 70주년 기념 Home-

coming Day 에도 워싱턴 동문들이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의 모임은 VA Tysons Corner 소재 우레옥에서 가졌는데 이 상임부회장이 저녁을 대접했다.

(사진 우: 왼쪽부터 안선미 현회장(농65), 강연식(사58), 백순(법58), 유재풍(법60), 함은선(음77), 이민섭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문59), 오인환(문63), 변만식(사49), 방은호(약42), 권기현(사53))

마침 이날 같은 우레옥에서 서울석 미주의대동창회 회장 주재로 워싱턴동창회 의과대 동문과 부인 모두 15여



명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상임부회장님은 오인환 명예회장의 안내로 그 모임에 들려 인사와 대화를 나누는 깜짝 기회가 있었다. 이 상임부회장은 물론 의대동문들도 매우 반가운 시간이었다.

남가주

: 스코필드 박사 100주년 기념



남가주 수의학과 동창회는 지난 4일 박종수 (수의대 58)동문 자택에서 정운찬 전 총장을 초청해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일제 강점기 스코필드 박사의 헌신과 독립운동을 기렸다.

: 코랄 단원모집

남가주 동창회 코랄이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나성영락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는 코랄은 금년 10월15일 Colburn School Zipper Hall 에서의 정기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연락: 장진영 지휘자 818-307-7059, 강정자 단장 310-801-4260

북가주

: 등산

2015년 11월 이성형(57.공) 동문의 제안에 따라 미서부의 대표적인 명승지 Grand circle를 다녀왔다.

동창회 등산 모임인 Zinfandel 회원을 중심으로 관심있는 동문들이 대거 참석하여 50명이 5월 2일 9시 Las Vegas 공항에서 만나 4박 5일 일정을 회기애에 한 분위기에 젖어 지냈다. 모두 몇 번씩은 가보았다는 Grand Canyon을 대신해 氣를 받기 위해서 Arizona, Sedona를 택했고, 다음날 환상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Page, Lower Antelope Slot, Horseshoes Bend, 서부영화에서 많이 본 대지와 하늘이 만나는 곳 Monument Valley로 갔다. 카메라, 핸드폰이 쉴새 없이 이곳저곳을 담기에 바쁘고 멋진 배경으로 자기 사진을 찍어 달라 부탁들을 한다.

셋째날은 Arches National Park에서 Delicate Arch, Devil’s Garden에 있는 Landscape Arch를 다녀 온 후 Canyonlands로 이동 Grand view, Mesa Arch를 탐사하며 이날 20,000步 이상을 걸었다. 처음부터 여행사에 등산을 목적으로 일정을 잡았기에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증명사진 찍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등산도 겸한 우리만을 위한 맞춤형에 가까운 일정이었다.

나흘째 날은 외계인 혹은 금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촬영지로 ‘도깨비 공원’이라는 Goblin State Park을 신기한 눈으로 보고 서부에서 제일 좋다는 드라이브 코스인 24번, 12번 하이웨이를 지나는 동안 Capitol Reef 국립공원에서 잠시 쉬고, 언제 보아도 황홀한 Bryce 국립공원에서 석양을 보며 Queen’s Garden Trail를 걷고 다음날 새벽 찬란한 여명을 바라보며 작은 소망을 빌었다.

닷새째 날은 남성미가 넘쳐 흐르는 Zion National Park에서 일부(6명)는 Emerald Pool Trail를 걷고 대부분의 일행은 Shuttle Bus로 Virgin River를 따라 조성된 Zion Canyon Scenic Drive를 즐긴 후 Las Vegas로 향하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여정을 함께한 동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참석한 동문 : 강정수, 김갑균, 김근창, 김모한, 김철규,노상규,이성덕, 이성형, 오명주,전승일, 정조웅, 정지선, 하춘근, 한만섭, 홍경삼. 이외 몇명이 더 있으나 기재하지 못함

글, 사진 홍경삼(문리대 61, 전 동창회이사장)



샌디에고

: 골프

동문회 골프대회가 6월 11일 (토) Castle Creek 골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풀이 저녁을 만파에서 골프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동문들과 가족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많은 동문들의 회비, 장학금, 기부금 덕분에 동문회 재정에 도움도 되었고 푸짐한 저녁식사로 즐기며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서정용 부회장의 골프대회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챔피언은 윤진수 동문 (의대 57)이 차지하였고 (상품: 챔피언 트로피+골프백), 룡기스트는 이문상 동문(공대 62), 니어리스트는 염두호동문(공대 57)과 이미자남(이창섭 동문 (공대 57) 배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 후에 서정용 부회장이 다가올 카약 행사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최흥수 회장이 별보기 행사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번 골프대회 및 저녁식사에 참석해주신 동문 및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astle Creek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이번엔 동문회 골프행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평철 (상대 64)/한숙례 동문가족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골프 행사를 잘 준비하느라 힘써주신 서정용 부회장 (공대 81) 및 다른 임원진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7월 중순 또는 하순경에 Joshua Tree Na-tional Park에서 캠핑겸 stargazing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한번 추진 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후기작성: 이정석 부회장)



시카고

:골프 시카고동창회(회장 정승규(공대60)) 회원 30여 명이 지난 21일 오 크브록 소재 월로우 크레스트 골프클럽에서 봄맞이 골프모임을 가지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 피크닉

6월 11일, 맑게 개인 하늘 아래 시카고 동문 가족들이 Great Lake Side 에서 피크닉을 가졌다. 02, 06 학번 등 관악세대와 부모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평의원회 상보 <7면의 계속>

2. 차차기 회장 후보 공고에 대한 공지가 이어졌다. 현재 미주동창회 회장은 2년을 임기로 가지며 올해 말까지 공고를 통해 차차기 회장 후보를 한 명 이상 내놓아야 한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인선위원을 마저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남가주 김병연 회장, 뉴욕 민준기 회장, 하틀랜드 이상강 회장이 추천을 통해 인선위원으로 더해졌다.

3. 한인동포 위암예방을 위한 메디컬 캠페인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비영리단체인 동창회 회칙과 해당 사업의 정체성이 부합하는지, 실제 캠페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진 않은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울대 의대 미주 총동창회 서윤석 회장은 “의료 관련 정보나 영상 등으로 정보를 줘도 충분하다”고 첨언했다. 이에 메디컬 캠페인은 실질적으로 중단하자는 데 평의원들의 뜻이 모였다.

4. 찬성과 동의를 거쳐 모교발전기금 위원장으로 7명이 연임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새로 활성화되는 장학위원장인 손재욱 회장이 세칙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정됐다. 미주재단이라는 조직으로 세금등록번호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 발전기금이나 장학금 지급에 있어 과정이 복잡하고 용어가 헷갈린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주동창회라는 타이틀을 중복시키기보다 미주 전체에서 이뤄지는 장학 사업 등을 모아 알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작은 규모로 활성화되는 장학위원회를 통해 지원해나가자는 데 여러 의원이 공감했다.

5. 작년 평의원회의의 의결에 따른 한국학연구소 설립안의 재론은 철회되었고 대신 한국학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오인환 회장의 의견에

대해 김정현 위원장이 “장학 위원회를 활성화해 그 안에 동아리형태의 한국학 모임을 두자”는 제안을 했고 가결되었다. 오전 세션에서 언급한 브레인네트워킹 제도에 대해 한국학을 연동해도 좋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6. 나눔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현 사회봉사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나눔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칙을 만들어 회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7. 회의 끝 무렵에서 크고 작은 건의사항들이 나왔다. 웹사이트를 자주 사용해 클릭수를 올리고 재정독립을 이루자는 의견, 1년 단위로 회보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를 진행하자는 것, 평의원 회의록을 웹사이트에라도 꼭 공개해달라는 요청 등이 이어졌다. 더불어 손재욱 회장은 미디어 비디오 사업으로 미주총동창회의 활동과 평의원 회의를 보다 투명하게 알리면 좋을 것이라는 제언을 했다. 그는 “이번 25차 본회의는 김지윤 동문을 통해 비디오 작업을 시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평의원회 소식과 사업 계획을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였다. 또한 허유선 특별사업국장이 10월 16일부터 진행하는 홈커밍데이에 대한 마무리 공지를 했다. 그는 “총장으로부터 17일에는 일일 학생 배지를 달고 규장각 등 캠퍼스 탐방을 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2박 3일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이니 미주동창회 모두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공지는 회의 마지막날 총동창회 사절단으로 참석한 이민섭 총동창회 부회장으로부터의 약속으로 모교 호암교수회관에 10개의 방을 무료로 제공받고 서울관광도 무료로 제공받게 되었다).

Let's go
HOMECOMING DAY
together
개교70주년
홈커밍데이 참가 안내

모교 서울대학교가 통합개교 70년 고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제 13대 미주동창회에서는 이 뜻깊은 행사에 모교 국제협력본부와 총동창회의 지원으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아래와 같은 2박 3일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정안내>

토요일 15일

아침 서울 시내 관광 (총동창회 제공 선착순 24명)
저녁 만찬 (미주동창회장 제공)
숙소 호암 교수회관 체크인 (총동창회 제공 방 10개)

일요일 16일

홈커밍데이 행사
저녁 만찬 (모교 총동창회 제공 장소: 호암교수회관)

월요일 17일

오전 자유시간
점심 식사 (학생식당) (총장실 제공)
관정도서관과 박물관 투어 (총장실 제공)
호암 교수회관 체크 아웃.

*모든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미주 동문님들의 편의에 따라 편리하신 시간에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허유선 특별사업국장 973-865-1749
general@snuaa.org

267호 | 2016년 7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15

[음악]

오페라 산책

제3화: 제일 훌륭한 오페라

우리는 무엇이 제일 좋고, 누가 가장 잘 냈고,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지난 올림픽 수영 경기를 보는데, 눈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어삼등을 정하는 것이었다. 일등과 이등의 차이가 겨우 손 한 뼨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등을 정해야 속이 시원한 것이다.

오페라에서도, 현존 2만8천 편 중에, 제일 훌륭한 오페라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술 작품을 어찌 일어삼등으로 가를 수 있오랴. 오페라를 평가할 요소도 많지만 어느 요소가 딱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중요한지 정하기가 힘들다. 평가자의 취향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짜르트의 <돈 조반니(Don Giovanni)>가 제일 훌륭한 작품이라는 데는 별로 이의가 없다. 베토벤은 돈 조반니가 그 내용이 부도덕하다고 해서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을 더 쳐주었다고 하지만.

<돈 조반니>는 모든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바람둥이 돈판(Don Juan)의 이야기다.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스페인 여인 1,003명, 이태리 여인 640명, 독일 여인 231명, 프랑스와 터키 여인 각각 100명과 91명, 도합 2,065명의 여인을 정복했다. 아름다운 여인은 감언이설로, 검은 눈동자는 친절로, 푸른 눈동자한테는 정원으로, 겨울에는 살 쥔 여인, 여름에는 마른 여인, 키 큰 여인은 거칠게, 작은 여인한테는 간교와 장난기로, 노치녀는 그녀의 환상을 몽롱하게, 그 기교가 다양하다. 이 병단에 몇 명을 더 추가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이 그 줄거리이다.

이 바람둥이는 결국 지옥의 사자에 끌려 불바다로 들어간다.

어 간다. 모짜르트가 지옥의 사자를 다룰 때 자신의 엄격한 아버지를 연상하였으리라 추측들을 한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하였고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방탕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영화 <아마데우스(Amadeus)>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이 오페라의 서곡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 이 서곡은 오페라 초연 바로 전날밤에 작곡하였다. 사실은 그동안에 머리로 작곡을 해 놓았던 것이다. 머리 속에 들어있는 총보(score)를 베끼기만 하면 되는데, 저녁 때 나가서 마신 술 때문에 졸음이 너무 오는 것이다. 부인 콘스탄잔테 부탁을 한다.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 해 달라고, 그리고 졸면 꼬집어 달라고. 동이 트고 사본가가 왔을 때 끝을 맺었다.

이것이 그의 작곡 방식이다. 반면에 베토벤은 평생에 <피델리오(Fidelio)> 한 편만 작곡했는데 세번이나 고쳤다고 한다. 그래서 문인들이 썼다 지웠다 하면서 쓰는 스타일을 베토벤 식이라하고 머리속에서 정돈을 다 해놓고 쓰는 것을 모짜르트 식이라고 한다.

모짜르트는 12살 부터 오페라를 쓰기 시작하였다. 제일 먼저 작곡한 것이 <바스티와 바스티네(Bastien und Bastienne)>이다. 놀랍게도 이 가극 서곡의 주제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첫번째 주제와 같다. 우연일까? 아니면 베토벤이 모짜르트 것을 표절했을까? 둘이 우연하게도 어느 알려지지 않은 음악을 이용하였으리라는 추측이 더 유력하다.

앞으로 아리아(aria)를 많이 소개하려 한다. 아리아란 독창곡을 뜻한다. 주연 가수들이 한 막에 한두개 씩 부르 게 작곡을 해 왔다. 그래서 한 오페라에 10곡 이상 나온 다. 아리아를 예로 들어 용어를 풀이해보면:
(A) 아리아를 아리아를 아리아로 아리아를 고개를 넘어간다 /
(B)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A는 칸타빌레(cantabile)라고 하는데 천천히 부른다. 서정적(lyric) 창법이다. B는 카발레타(cabaletta)라고

사진: 지옥의 사자에 끌려 불바다로 들어가는 돈 조반니

하는데 빠르게 부르면서 멜로디에 장식 음을 많이 붙여 화려하다. 색깔을 많이 칠한다. 해서 콜로라추라(coloratura) 창법이라고 한다. 가수들이 실력 발휘하는 곳이다. 모짜르트와 벨 칸토 시대에는 A와 B를 부르고 나서 A를 또 불렀다. 이렇게 처음을 반복하는 것을 다 카포 아리아(da capo aria)라 하고, 반복이 없이 부르는 것을 카바티나(cavatina)라고 한다. 아리아랑 같이 짧은 곡은 아리에타(arietta)라고 한다.

애석하게도 베르디 말기부터 오케스트라에 비중을 점점 더 주게 되어 바그너 말기에는 아리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었다.

백순 교수 팔봉문학상 수상

소설 ‘해조음’ 재조명

팔봉문학상위원회 (박윤수(문리대 48) 회장)가 5일 한미과학재단에서 시상식을 열고 백순(법대 58) 버지니아 워싱턴대 교수에게 2016년 팔봉문학상을 시상했다.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는 팔봉 김기진 선생의 딸 김복희 여사를 비롯해 위원회 관계자, 워싱턴 문인들이 참석했다. 송찬호 시 '장미' 낭독, 바리톤 최인

달 제임스 매디슨 교수의 축하 음악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로 문을 연 행사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박윤수 회장의 초청사 대독, 오인환 전 미주 서울대총동창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김복희 여사는 '칼의 노래' 저자인 김훈 작가가 언론인 시절 팔봉 김기진에 대해 쓴 찬사를 대독하며 아버지 팔봉을 추억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2016년도 팔봉문학상을 수상한 백

순 교수는 “팔봉의 작품을 처음 알게 된 건 중학교때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통일천하’를 접하면서부터였다”며 “팔봉 김기진 선생은 소설을 많이 썼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신랄한 평론들을 내며 평론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이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백순 교수에게는 김복희 여사가 기탁한 500달러의 상금이 시상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팔봉의 소설 '해조음'을 재조명하는 리딩 행사가 열렸다. 이영목(공대 59) 작가의 주도로 한복 등 해조음 속 시대상을 반영하는 의상을 갖춰 입은 4명의 성우들은 각자 등장 인물을 맡아 해조음 제1장을 낭독해 큰 환호를 받았다.

이 작가는 “팔봉은 당시 한국인의 고달픈 삶을 해조음을 통해 조망함으로써 ‘깨어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듯 하다”며 “그를 기념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회고하기 위해 이번 리딩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나의 worst and best 여행은 honeymoon 중의 한 날이다. 우린 LA 공항에서 차를 렌트해서 라스베거스, 후버댐, 자이온 캐년 등을 돌고 내가 중학교때부터 꿈에 그리던 그랜드캐년을 보는 것이었는데.. GPS도 없던 그 시절 지도만 보고 마구 달려가 밤 12 시 넘어서 우린 그랜드캐년의 한 과킹랏에 도착했다. 만국기가 흔들리는 파크안의 호텔은 당연히 너무 비쌀거라 생각에 차안에서 자기로 했다.

새벽에 눈을 뜨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관을 보고, 호연지기, 독야청청, 청렴결백, 현모양처로 살리라 다짐을 했다. 너무 미안해 하는 남편 머리 (아...그때는 머리카락이 있었지) 몇번 쓰담아주며 “it’s so ok” 라고 하고 만국기 휘날리는 호텔로 아침 먹으러 갔더니... Off the season 이라 많이 비어있었던 방들이 값도 너무 싼더라는..

아...인생의 최고는 항상 best 와 worst가 공존 하더라. 허유선(가정대83)



부활절 봄방학을 라스베가스에서 보내겠다는 큰아들 내외의 말에 ‘자연 속을 멀리하고 도시의 문명 속으로 호객하고 있는 환락과 도박의 거리 그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온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6살 손자와 함께 LA 근교 최고봉인 Mt. Baldy의 8부능선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하우스 산장까지 눈 덮인 산길로 오르고 내려왔다.

“할아버지!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아요”라는 말에 “그래 고맙다, 그 마음 변하지 말라”고 하며 나의 어린 산골 시절을 떠올렸다. 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인심은 조석변이요 산색은 고금동’이라는 한시를 설명하며 ‘산사람이 되어

그 마음 변치말라’고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활의 산행을 감사드리며 월요일 개학하던 날 큰손자의 하교시간에 산행 기념사진을 한아름 안고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손자를 안듯이 가까이 속삭이는 선생님의 표정에서 봄방학 산행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날 손자는 유일하게 선발되어 반 학생들 앞으로 나아가 산행 체험기를 발표할 기회를 누렸다고 하였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번 부활절을 가장 잘 보낸 사람은 부활의 산행을 좋아하는 큰 손자라고 하였다. 김석두(농대 58)

김림성 연길 공항에 내리니 바깥 온도가 영하 26도 (섭씨) 라고 누군가 말했다. 찬공기 밤바람이 얼굴을 송곳처럼 찌른다.

며칠 후 도문(圖門, Túmén)엘 갔다. 북한 땅이 바로 건너다 보인다. 생각보다 폭이 그리 넓지 않은 두만강을 건너 나는 하얗게 얼어붙은 땅사이로 비집고 나온 마른 풀들을 쓰다듬어도 보고, ‘여기가 북한땅이라니!’라는 감각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갑자기 강 건너에서 사람들의 외침소리가 들렸다. 뭐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짓을 하는 게 아닌가? 무슨 급박한 일이 벌어지나? 뒤를 돌아보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북한 병사 둘이 총을 겨누며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라고 소리를 지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절대절명의 순간.



어떡하지? 잡히면? 무조건 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총을 쏘면 혹시 빗나가는 경우, 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을 수 있게끔 내 자신을 움직였다. 그들은 불과 10여미터 가까이로 다가 왔고, 난 죽기살기로 뛰는데, 얼어붙은 강위로 덮힌 눈때문에 얼마나 미끄러운지..

어떻게 잡히지 않고 살아돌아왔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때 잡혔더라면? 눈덮힌 산 속에 움막을 치고 추위에 떨며 숨어살던 30여명 탈북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등이 카메라 속에 들어있는데..

(그리고 나서 몇년 후 겨울, 나처럼 우연히 두만강을 건넜다 잡혀간 두사람의 미국 기자들을 클린턴 전 대통령이 데리고 나온 뉴스가 있었다.)

김정현(공대 68)

잊지 못할 휴가

산 마르코 광장*의 의자
손명세 (공대 60)

출발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만
험한 하늘에 금을 긋고 가는
산 마르코 광장의 풀어진 와류(渦流) 속에
비둘기 숫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 종일 비둘기들과 자리 다툼을 한다

피곤하고 집진 자들이
지친 다리들을 걸어 놓고
마음을 누일 수 있는
노천카페는 성당이다
한 잔의 커피잔에 풀어 놓는 하루의 고해성사

무거움을 털썩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의자
온 종일 온갖 치부들을
어루 만져주던 의자
하나님이다

참 많다.



*이태리 베니스의 산 마르코 대 성당과 높은 종탑이 있는 대광장

휴가는 아니었어도 90년대 한국 체류 시의 모스크바 출장이 기억에 남는다. 매달다가 무게를 못 이기어 떨어트려 깨진 채로 땅 위에 그대로 있는 초대형 종, 너무 무거워서 시험 발사 한번 못해 본 거대한 포탄과 그 옆에 놓여 있는 대구경 대포등을 보며 “이러한 우직한 면이 오늘의 유럽을 만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주말에 가 보고 싶은 곳을 묻는 러시아인 과학자에게 내가 러시아의 자연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뾰뾰한 숲 한가운데로 나를 안내하는 것이었다.

사방 몇십 마일내에 인적이란곤 전혀 없어 오싹해질 만큼 조용한 숲 속에서 그 가운데를 흐르는 밀바닥이 환히 보일 정도로 맑은 강물을 보며, 미국 말고는 맞설 나라가 없을 만큼 앞서가는 첨단 과학기술과 태곳적 원시 그대로의 자연을 동시에 갖춘 러시아의 무한한 잠재력이 느껴져 정말 부러웠다. 그 여행은 그때 느꼈던 부러움과 함께 지금도 기억에 또렷하다. 이석호(공대 66)



손주들의 첫 바다여행
6살.4살.
수영하겠다고 속에
수영복을 입고 갑니다.
막상 새까만 바닥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물속에서
놀고있는 몇사람을 보면서
“와.....!!!!”하며 달려가더니
폼짝 안하고
둘이 손을 잡고 서있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의 표정이
상상되는 뒷모습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마우이의
Hana black sand beach에서
(간호대 70 이순희)





한선정의 미 서부 건축 기행

LA 다운타운 - 딱딱한 콘크리트에서 울려나오는 감동

LA에 내려와서 산 지 이제 8년이 되어 갑니다. 버클리에서 LA에 왔을 때 제 인상에 처음으로 강력하게 남았던 것은 복잡한 프리웨이, 줄지어진 높다란 아파트, 그리고 TV에 나오는 뉴스 앵커들의 화려한 의상과 부담없이 재미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같은 캘리포니아지만 북가주와 남가주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지요. 그런데 LA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눈부신 햇살, 그 아래 여러 민족들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 자유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건축 설계 일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보고 느끼는 것이 건축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명목 하에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녔지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지방 산천 곳곳과 유럽 등을 다녔는데 지금은 미국에 와서 넓은 미국 땅을 다 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동창회보를 통해서 LA를 시작으로 하여 미국 서부 건축 기행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건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기행시리즈에서 재미난 실마리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LA 다운타운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LA 다운타운을 상징하는 건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Frank Gehry가 설계한 Disney Concert Hall(사진1)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Frank Gehry는 미국서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축가이지만,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입니다. 1978년에 지은 그의 산타모니카 자택은 주름진 금속판과 체인링크(chainlink)가 서로 대립되고 충돌되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주목을 받았지요.

이후로 계속 실험적인 방법을 발전시키면서 최근에는 건물의 외피가 천과 같이 유연하게 이어져 만들어지는 형태를 추구합니다. 2003년에 완공된 디즈니 콘서트홀의 금속 외장 패널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곡선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원래 프랑스 항공회사의 프로그램인 카티아(catia)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게리 건물의 특징은 겹으로 화려해 보여서 형태위주의 디자인이라는 선입견을 갖기가 쉬운데, 실제로 건물 안에 들어가보면 공간감이 풍부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게리 사무실에서는 실내공간 디자인을 위해 실제 모델 스타디움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운타운의 또 다른 유명한 건축물중에 스페인 건축가인 Rafael Moneo가 지은 Our Lady of Angeles Cathedral(사진2)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어질 당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대성당이며, 미국에

서 근 25년만에 처음으로 지어진 대성당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 건축가의 건물을 미국에서 볼 수 있게 되어 2002년에 오픈하길 학수고대하던 기억이 납니다.



1. Disney Concert Hall (Frank Gehry 설계)



2. Our Lady of Angeles Cathedral 외부(위), 내부(아래) (Rafael Moneo 설계)



3. Caltrans (Morphosis 설계)



4. Nokia Theater와 Ritz-Carlton호텔이 있는 LA Live

이 건물의 진수는 육중한 매스와 그 사이에 조각되어진 틈과 창을 통해 빛이 투과되며 느껴지는 공간감과 종교적인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네오는 거리에서 직접 성당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Temple Street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들은 하단의 광장, 커다란 계단, 또 다른 상부의 광장을 거쳐야만 25톤의 브론즈로 만들어진 성당의 문에 비로소 들어서게 됩니다.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성당내부 공간입니다. 아침의 햇살이 다르고 늦은 오후의 햇빛에 따라 성당내부의 빛의 향연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프리웨이를 통해 무심코 지나보시기만 했다면 한번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적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운타운의 또 다른 명물은 2004년 Morphosis에 의해 설계된 Caltrans(사진3)건물입니다. LA시정 건너편에 도시한 블록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건물은 Caltrans District7의 본사건물로서 California Design Excellence Design Program에 의해 주도된 첫 번째 건물이라고 합니다. Morphosis는 UCLA 건축학과 학장을 하기도 했던 Tom Mayne이 설립자인 회사인데, Gehry와는 달리 건물의 외피(skin)디자인에 주력합니다.

Tom Mayne은 LA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건축가로서 건축의 최고의 상인 Pritzker Prize을 수상했습니다. 이 건물은 일종의 트랜스포머(transformer)입니다.

외부의 유리벽이 double skin구조로 되어 있어, 유리벽 안에 구멍이 난 알루미늄 판넬이 있습니다. 이 판넬이 태양과 기후 조건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면서 건물 파사드의 투명도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멀리서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이 건물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외부벽 디자인에 있습니다. 남쪽 벽은 전부 태양열에너지로 만들수 있는 솔라셀로 만들어져 건물의 5%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전반적으로 짙은 색의 건물인 형태는 캘리포니아의 프리웨이를 상징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최근에 다운타운에 지어진 건물로는 Nokia Theater와 Ritz-Carlton 호텔이 있는 LA Live(사진4)가 있습니다. LA Live Complex는 오랫동안 조용했던 LA 다운타운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밤에 한 번 LA Live를 찾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한국의 명동을 다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인 De Stefano에서 했던 Concerto콘도는 다운타운에서 몇 안 되는 최근에 건설되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습니다. Loft건물과 타워건물 하나는 완성이 되고 가운데 포디엄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다운타운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유보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가어서 회복되어 비전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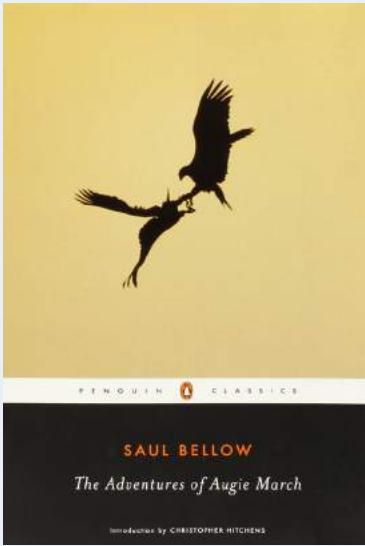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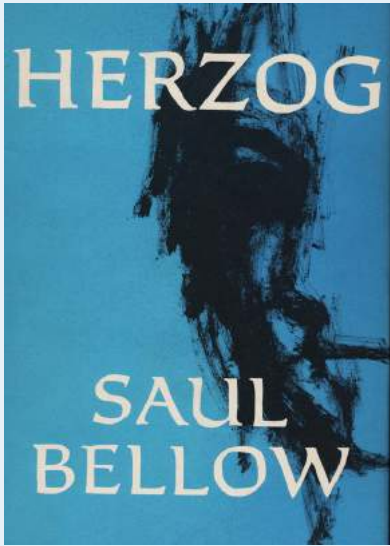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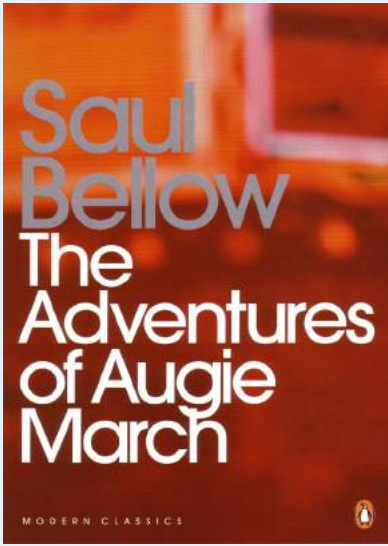
Saul Bellow의 작품 세계



임봉기 (공대 63)

금년이 노벨상 수상 미국 소설가인 Saul Bellow의 탄생 100주년이라고 하여 지난 5월에 New Yorker지와 주요 신문에서 그의 소설에 대한 평론이 많이 실렸었다.

특히 저자의 대표작인 ‘Herzog’와 준대표작인 ‘The Adventure of Augie March’를 미국소설의 극치라고 까지 칭송하여



두작품을 읽어 보았다.

저자는 Chicago 에서 성장한 유대인 이민자. 부모와 조모는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하다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이민하였고 그 사정이 두소설에서 자세히 잘 묘사되어 있다. 이 두 소설을 읽으면 유대인 특히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의 깊은 사색을 같이 느끼게하는 마력이 있겠 것 같다. 지난 번에 소개한 철학자 Isaiah Berlin과 유사한 뿌리를 가졌다고 할까.

“Herzog”는 작가의 후기작품으로 교수 생활과 비극적 이혼을 둘러싼 정신적 갈등을 그런데 반하여 ‘Augie

March’는 초기 작품이므로 작가의 젊은시절의 성장과정을 잘 그린 이른바 미래지향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두작품에서 저자의 나이에 따른 생각과 표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서술의 방식이 복잡하고 일상표현의 수준이 사색적이라 쉽게 읽히지 않는 소설 중의 하나이다. 본인은 몇 년 전에 저자의 다른 소설 ‘Dean’s December’를 처음 대하면서 (대표작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농도 깊은 사색과 철학에 감탄한 바 있는데, 두 소설역시 실망을 주지않는 심각한 작품이므로 뜻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다.

[회고]

칭찬의 힘



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 버렸습니다. 저는 갈라지는 길목에서서 망설였습니다. 청년을 따라 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 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습니다. 당황해서 큰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길가에 울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찾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청년이 저 준다면서 쌀자루를 지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에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서서 새끼 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두 개를 얻어 오셔서 내 입에 넣어 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낫이 있지’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위기에 생애를 걸었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 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稱讚 해 주시더니... 그 후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하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토양이었음을 고백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았지만 나를 똑똑한 아이로 인정해 주시던 어머니의稱讚의 말 한 마디가 지금까지 제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편집자 註: 이 이야기는 모교 박동규 (문리대 57) 명예교수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박동규 교수의 부친은 박목월(朴木月) 시인이고 이 글 중의 어머니는 모친 유익순님이십니다. 박동규 선생님은 모교 졸업 직후 편집자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국어(작문)선생님으로 재직하셨고 후에 모교에서 교수생활을 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신간] 이태상 작가의 희망메시지

‘꿈꾸다 죽거라’



이태상 (문리대 55)

흔히 요즘의 젊은 세대를 3포세대라 부른다. 3포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우리사회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로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높은 집값을 이유로 3가지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요즘의 젊은 세대가 포기한 것이 세 가지뿐일까? 출구가 없는 취업난 탓에 이상을 잃고

그저 안정적인 직업을 쫓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꿈을 잃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공무원과 고시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렇게 꿈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작가 이태상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자연과 인문’이 출판한 이태상의 신간 <꿈꾸다 죽거라>에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꿈의 중요성과 꿈의 재발견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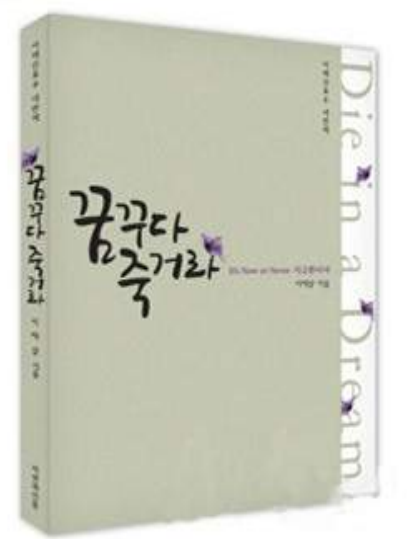
이태상은 책 ‘꿈꾸다 죽거라’를 통해 인간의 불안전성과 완전성 사이에 놓인 무지개와 같은 것이 꿈이라고 말하며, 그렇

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부족함이 있기에 채움이 있는 것이고,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오르막이 있다고 서술했다.

이는 힘든 주변 환경 탓에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젊은 세대에게 던지는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즉,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고 죽음이 존재하기에 삶이 있듯이 ‘이생망’ 대신 ‘이생흥’, 즉 이번 생은 흥했다고 말 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꿈을 향한 따뜻한 이야기로 채



워진 이태상 작가의 책 ‘꿈꾸다 죽거라’를 통해 젊은 세대는 물론 꿈을 잃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다시금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

버림받은 여자 아이들을 가르친 비발디



최은관 (상대 64)

비발디는 1678년 3월 4일에 베니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성 마가 성당에서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신부가 되는 것이 꿈짜 교육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다.

1703년, 25살에 신부로 서임을 받았지만, 천식이 있어 미사를 올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피에타 병원(Ospedale della Pietà)에서 바이올린 선생으로 임명받았다. 붉은 머릿털 때문에 붉은 신부라고 알려졌다.

1. 버림받은 아이들과 병원 베니스에는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병원이 넷 있었다. 처음에는 십자군을 돌보는 병원이나 호텔 역할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 역할이 달라졌다. Ospedale degl’Incurabili (불치자 병원)은 매독 환자, 고아, 창녀들을 받았고, Ospedale della Pietà는 버림받은 아이들을 받았으며, Ospedale di Santa Maria는 집없는 아이, Ospedale di San Lazarus e dei Mendicanti 는 문둥병자를 돌보았다.

베니스에는 사생아를 이 병원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창녀의 수는 2만 명이나 되었다. 귀족들이 애인과 낳은 私生兒를 집에서 기를 수 없어 이 고아원 내지 병원에 흔히 맡겼다고 한다. 병원에는 그런 여아들이6천 명이나 있었다. 이런 아이들을 받는 스카페타(scafetta, 아기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서랍)가 문 앞에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어머니가 병원의 벨을 누르고 아기를 스카페타에 놓아 두고 도망가면, 직원이 나와서 아기에 대하여 비밀 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이름을 지어 주고 왼쪽 팔목에 P-자 (아마도 Pietà의 두문자)의 낙인을 찍었다.

이 아이들은 음악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고, 재주 있는 소녀들은 합창단에 들어가 정기적으로 공연하였다. 합창단의 인기가 높아지자, 버림받지 않아도 음악 재주가 있는 아이들도 받게 되었다. 대다수의 버림받은 아이들은 여아였고, 이들은 요리사, 청소부, 바느

질 따위의 일을 배웠다. Figlie del coro (합창단의 딸)에 계속 남는 여자들은 음악 학교처럼 연주와 작곡 훈련까지 받았다. 이 아이들은 음악회가 있을 때 베일 뒤에서 공연하고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중 앞에서 여자들이 공연하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여자 아이들은 자라서 결혼하든지 수녀원에 들어갔다. 물론, 병원은 이 여아들을 잘 교육시켜 좋은 남편을 찾아 주려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사진: 어느 무명의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유일한 비발디 초상화. Civico Museo Bibliografico Musicale, Bologna (볼로냐 시립 음악문헌 박물관)

세 번째 길은 병원의 합창단에 음악 봉사자로 (in-servienti della musica) 남는 것이었다. 자기보다 더 교육받은 여자를 아내로 얻으려는 남자들이 베니스에 드물었고, 여자들은 합창단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인들은 1년에 최소한 100리라(lira), 오늘날의 임금으로 약 \$2000을 벌었다.

Antonio Vivaldi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멘디칸티(거지) 병원에서 공연한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나보니, 대개가 가난하고 얼굴이 추한 여자들이었다고 한다. 어떤 여인은 끔찍하게 생겼고, 어떤 여인은 외눈박이였고, 어떤 여인은 점투성이였고, 얼굴이나 몸에 흠이 없는 여자 아이는 거의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2. 비발디의 작곡 정신 1714년에 합창단 지휘자 가스파리니가 사임하였고, 그 자리를 이어받아 비발디는 이후부터 교회 음악을 작곡하게 된다. 다른 음악가들은 영감이 떠오르면 작곡하였다. 이와 반대로 비발디는 버림받은 여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작곡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여자 아이들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비발디는 음악 교육을 시켜 긍지를 심어 주었고, 훌륭한 음악가들로 길렀다. 여러 아이가 솔로로 연주하는 부분이 있도록 여러 악기를 사용했다. 비발디는 각 여자 아이의 특성을 잘 알았고, 이를 살리기 위하여 작곡했다.

예를 들면 오페라 그리셀다(Griselda)는 지로(Giro)를 위하여 작곡했다. 오보에를 위한 곡이 여럿이 있는데, 펠레그리나를 위하여 작곡한 것들이다. 펠레그리나는 베이스(bass)로 시작했다가,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고, 나중에 오보에(oboe)를 불었는데, 62세가 지난 뒤에 다시 바이올린으로 바꾸었다. 이가 다 빠져서 오보에를 불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40년에 베니스가 불황을 겪게 되자, 피에타 병원의 작곡가 자리를 사임하였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6세(Charles VI)를 만난 뒤에 그의 후원을 받아 비에나로 이사했으나 도착하기 전에 황제가 곧 죽었고, 비발디에게 가난이 닥쳤다. 가난이 그의 죽음을 재촉한 듯하다. 그는 비에나에서 얼마 있다가 1741년 7월 28일에 죽었다.

좋은 생각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다.

비발디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자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으로 긍지를 심어 주고 희망을 주었다. 그런 고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길렀으니, 하나님님이 하늘의 음악을 내려 주어도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비발디는 하늘의 음악을 얼핏 들었는지도 모른다.



전무식 (수의 61)

Jackson 을 2020년(미국의 여성 참정권 획득 100주년 이 되는 해)부터 흑인 노예 Abolitionist였던 Harriet Tubman (1820-1913)으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New York Times 는 이를 “흑인 여자 노예가 백인 남자 대통령을 쫓아내게 되었다” 라고 익살스럽게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10불 짜리 지폐의 앞면 초상 인물인 건국 초대 재무장관, Alexander Hamilton (1755-1804) 을 먼저 대체하려고 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인해 해밀턴의 초상은 그대로 앞면에 두고 여성 참정권 운동가 (the women’s suffrage movement activist) 5명과 Treasury Building 을 10불 지폐의 뒷면에 넣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년 (2016년)이 알렉산더 해밀턴 사후 212년이 되는 해인데 그는 아직도 엄청난 Media Spotlight 를 받고 있다. 유명한 전기 작가인 Mr. Ron Chernow 가 저술한 <Alexander Hamilton>이라는 책이 New York Times 의 Non Fiction 부문에서 Best Sellers 에 올라 있고 이책을 근거로 만든 LinManuel Miranda 가 제작하고 주연하는 Broad Way Musical, <Hamilton>은 앞으로 일년치 티켓이 이미 매진되었으며 온라인 상에서 입장권 한장이 천삼백 달러에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얼마전 특별 전용기를 타고 뉴욕시를 찾아와서 이 Musical 을 관람하고 깊은 감명을 받아 주연배우인 Miranda와 출연자 모두를 백악관에 초대해서 대접을 하며 답소를 나누었다. 이처럼 해밀턴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이유는 그의 출생과 성장, 연애와 결혼 그리고 독립전쟁 당시에는 워싱턴 장군의 수석 보좌관으로 전쟁 후에는 건국 초대 재무장관으로 당시 이 미 67세의 노인으로 병약했던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하며 새연방정부가 정착할 수 있도록 눈부신 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초대 재무장관으로서 거의 독단적으로 제조산업 육성 과 중상주의(Mercantilism) 정책을 펴서 오늘날 미국이 군사 및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이 되는 기초를 닦아 놓았으며 필라델피아와 보스턴 다음으로 세번째 정도였던 뉴욕시를 제일 큰 도시로 또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는 터전을 세웠기 때문이다.

사실 해밀턴의 소망은 뉴욕시를 런던이나 파리처럼 정치와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의 정적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등이 뉴욕시를” Hamiltonopolis” 라고 아우해서 부르기도 했었다.

Alexander Hamilton



그의 불행한 죽음(당시 현직 부통령이었던 Aaron Burr 와 결투(Duel)후유증 때문) 과 그의 생애 전체가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밀턴은 1755년 1월 11일 British West Indies(Caribbean Islands)의 영국식민지였던 작은 섬 “ Nevis” 의 수도 Charlestown 에서 프랑스 개신교 신자 의 모계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부계 사이에서 사생아로 출생했다.

홀어머니와 형 하나와 함께 어렵게 살다가 어머니마저 일찍 전염병으로 요절하자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으며 친척집에서 지내던 어느날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의 소개장 하나만 들고 Nevis 섬의 많은 Businessmen들의 도움으로 배삯을 마련해 보스턴행 화물선에 승선하게 된다. 장장 3주간의 긴 항해 후 18세의 어린 나이로 뉴욕 항구에 도착했다. 그 후 다행히 Hercules Mulligan 이라는 든든한 후견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그 당시 명문 사립학교인 Elizabethtown Academy 라는 대학 준비 예비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이 학교는 훗날 그를 총으로 쏘아 죽인 Aaron Burr (1756-

1836)가 이미 졸업을 했던 학교로서 그와의 처음 조우도 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으나 Burr는 이미 Princeton 대학교로 갔고 해밀턴은 후에 King’s College(현 Columbia University)에 입학한다. 대학 재학중 독립전쟁에 자원, 참전했으며 후에 와싱턴 장군의 막료(대령, 훗날 소장으로 진급)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헌을 했다. 또 와싱턴 장군의 부관으로 있을때 장군의 친한 친구로 뉴욕주에 부호이면서 막강한 군벌 가문의 Philip Schuyler 소장의 둘째 딸, Elizabeth Schuyler 와 신분을 초월한 열렬한 연애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다. 그 후 초대 재무장관으로 신생 정부가 정착하는데 눈부신 활약을 했다.

1784년에 이미 ‘Bank of New York’ 을 창설했고 1791년에는 해밀턴의 제안으로 ‘The Bank of The United States’ 를 필라에 그 본부를 두고 8개의 Branches 를 8개 도시에 각각 설치해 일반 상업 업무와 federal fund 를 각 처에서 저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방정부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재무장관을 사임한 후에는 뉴욕주에서 명망 높은 변호사로, 그리고 뉴욕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늘리자는 Federalist Party 를 창설해서 토마스

제퍼슨의 주정부의 권한을 더 신장 하려던 Republican Party 에 대항하는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미국 헌법의 의회 통과를 위해 활약을 하는 등 많은 정치적 업적을 남겼다. 해밀턴은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횡사를 당해서 그의 원대한 꿈과 이상을 모두 펼쳐 보지도 못하고 갔지만 우리와 같은 이민자로 신생 미국의 Military Leader, Economist, Political Scientist, Lawyer, 및 Journalist 와 Government Official 로서 건국 초기의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비명에 간 불세출의 Founding Fathers 중 한 분이였다.

참고로 그가 남기고 간 몇개 어록을 소개한다.

- 1) “ Those who stand for nothing fall for anything”
- 2) “ National debt , if it is not excessive, will be to us a national blessing.
- 3) “ Why has government been instituted at all ? Because the passion of men will not conform to the dictates of reason and justice without constraint.



모든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는

선한 인재 장학금
모두가 함께 응원합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 이렇게 지원합니다.

가계소득 1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학생 전원에게 매월 생활비 30만원, 연간 360만원 지원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식모금 기관입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꿈을 키워가는 학생 여러분의 수기를 보내주세요.
T.02-880-8004 F.02-872-4149 E.snuf@snu.ac.kr URL.www.snu.or.kr

[영화]

ANGEL-A

: 진부한 주제를 진부하지 않게 푸는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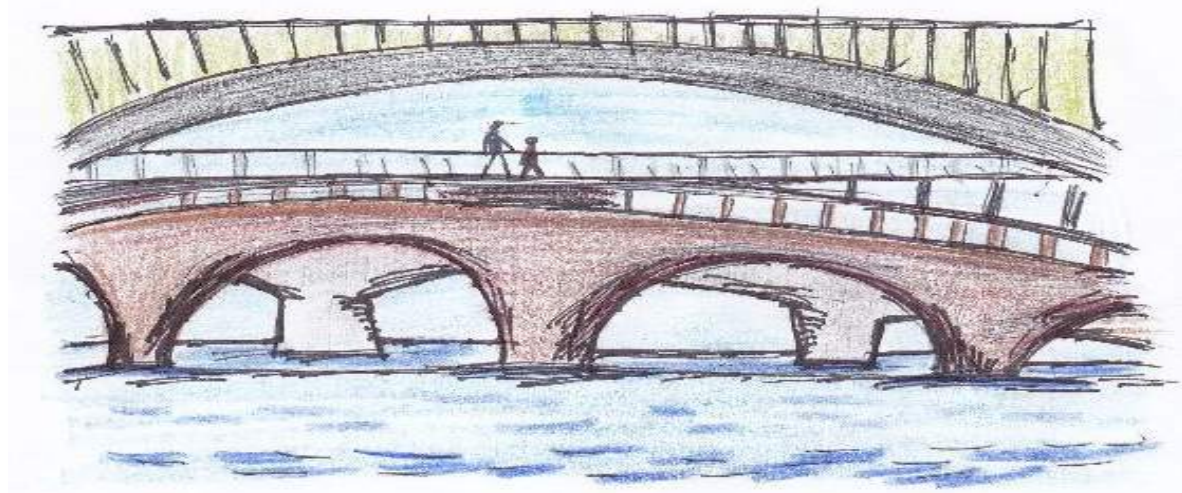


박준창 (인문대 79)

나는 메시지가있는 영화는 싫어한다. 그런데 이 영화는 메시지가 있는 정도를 넘어 너무 뻔하다. 그러나 너무나 진부한 메시지를 진부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는 재미있다.

주인공은 아무데도 쓰잘데없는 외팔이 모로코 출신 아랍인.. 이름은 Andre Moussah.

그는 사채업자에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를 못하고 있다. 그는 사채업자들로 부터 빚 독촉에 시달려 돈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지만,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낙담한 그는 세는 강 위 한 다리에 올라가 투신 자살을 하기로 한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뛰어 내리려는 찰라 옆의 다리 난간에서 한 여자가 뛰어 내린다. 이것 저것 생각할 여유없이 그도 뛰어 내려 여자를 구한다. 구해 놓고 보니 이 여자 젊은데다 금발의 팔등신 미인이다. 이름은 Angela. Moussah는 도대체 이런 여자가 왜 자살을 시도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런데 이 여자가 걸작이다. 그녀같이 예쁜 여자는 다른 불쌍한 사



[세는 강에는 다리들이 참 많다. 겹겹의 다리들을 배경으로 걸어 가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인상적이다.]

람을 도와야 하며, Moussah는 불쌍한 사람이니 자신은 Moussah의 것이고 Moussah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하겠다. 이 말을 안 믿는 Moussah는 시험삼아 입을 맞춰보라고 한다.. 그런데 Angela 는 입맞춤도 모자라 한번 더 해줄까 라고 까지 묻는다.

이 둘은 같이 사채업자를 찾아가ندا. 다시 사정해 보려고. Moussah가 얘기하는 동안 Angela는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것도 모자라 긴 두 다리를 쥘 벌리고 흔들며 앉아있다. 언더웨어가 드러남은 물론이다. Angela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던 사채업자는, Moussah를 남겨두고 Angela를 데리고 그의 위층 서재로 올라 가는데... 그러더니 나타난 Angela는 빛이 다 해결되었다면서 Moussah에게 돈까지 준다.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데 급한 빛은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빛을 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Angela는 이 빛 해결을 위해 또 나선다. 하룻밤만에 돈을 다 마련하는데 방법은 간단하다. 나이트 클럽에 가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와 Angela가 화장실에서 매춘을 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여긴 Moussah가 누구냐고 다그쳐 물으니 마침내 Angela는 자신이 천사이며 Moussah를 돕기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밝힌다. 영화 제목 Angel-a에서 보듯 이름이 Angela인 것은 당연히 천사임을 나타내기 위



한 것. 그러면서 자신은 Moussah가 심성은 좋은 사람임을 Moussah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려고 왔다고 한다. 결국은 Moussah도 천사라고 같다며, Angela는 Moussah 자신을 거울에 비쳐보게 하고서는 자긍심과 자애를 가르친다. 마침내 Moussah는 거짓말하지 않고 용기있게 진실을 말하는 법을 깨닫고 실천한다. 이런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사랑이 싹튼다. 하지만 Angela는 자

이 순간

박평일(농대69)

숲속에 쏟아내리는
초여름 햇살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결에
나뭇잎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파란 하늘,
하얗게 피어오르는
몽개구름들도
당실당실
춤을 춥니다.

이름 모르는
한 마리 산새가
내 영혼의 뒤통이에
다소곳이 용지를
칩니다.

먼날, 아주 먼날
추억들처럼...

갑자기
잔혹색 나뭇잎들이
하늘을 비상하고 있습니다.

못다한 나의 사랑,
나의 꿈들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삶은 순간 순간이
떨림입니다.

부고

지난 5월 29일 저녁 11시 10분에, 제2대 남가주 회장을 지내셨던 이 우근 선배님(성악 50학번)께서 향년 86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셨기에 삼가 부고드립니다.

*경례

남가주원로음악인 회장 / 나섬영락교회 명예장로 / 성악가 / 국립오페라단 창단멤버 및 단원 / 35년간 성가대 지휘 / 오페라 춘희, 춘향전 라보엠등 기타 20여편 주역으로 공연 / 남가주음악가협회 회장 역임 / 할리우드 사만 음악학교 교수 / 뱀열장로교회 성가대 지휘자 / 파사데나에서 BELL CANTO 성악 개인지도 / 2000년 6월 18일 교회 독창회(Colburn Ashool of Performing Arts, Zipper Hall)

전화 : (626)282-9977
Cell : (626)202-9737
주소 : 305 San Marcos St. Unite C
San Gabriel, CA 91776

이원영 (사회대 81)

“천억이라도 그의 시 한 줄 값도 안 되리”

분단시대에 백석을 사랑하는다는 것은

익문인으로 분류돼 창작활동을 금지당했다. 방향을 튼 아동문학이 주제사상과 어긋난다는 비판에 부닥쳐 개마고원 근처 삼수감산으로 사실상의 ‘유배’를 당해 염소를 기르며 노후를 보내다 1996년 84세로 쓸쓸한 생을 마감했다.

일제, 해방공간,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안으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천재시인이 왕성한 창작욕을 불사르지 못하고 시를어간 그의 삶을 생각할 때 비탄감에 젖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시를 잘 즐기지도 못하고 문학적 감수성도 미천하기에 시인들의 상상력을 예찬할 수준도 못된다. 시를 직접 지어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고,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 적도 거의 없다. 그런데 백석의 시를 읽으면, 그것도 소리 내며 낭독하면, 백석 같은 시를 쓰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만 이래서 사람들이 절창, 절창 하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다.

백석의 러브스토리도 영화 같다. 사랑한 여인 ‘자야’(본명 김영한)는 기생이었다. 남북이 갈리는 바람에 자야는 남에, 백석은 북에 남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 자야는 최고의 요정집 ‘대원각’의 주인이 된다. 90년대 중반 그녀는 당시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이 건물을 법정 스님에게 양도해 김장사로 태어나게 한다. 아깝지 않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이(백석)의 시 한 줄 값도 안 된다”는 말로 평생 품었던 연심을 드러냈다. 백석이 사망한 지 3년 뒤 자야도 세상을 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노래하며 좌우의 편가르기를 시로써 거부했던 백석. 오늘날 분단시대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또다른 통일 염원이 아닐까.

북한에서는 조만식 선생을 도왔다는 등의 이유로 우

〈언론인, 한의학 박사〉



나와 나타샤와 힌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폭폭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나리고
나는 홀로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 밤 힌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히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폭폭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는 아니 울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폭폭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힌 당나귀는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마가리는 오두막집이라는 뜻)

[문화산책]



김창수 (약대 64)

아이리시 위스키는 주원료인 옻기름과 보리, 호밀 등을 발효해서 만든 술을 대형 단식 증류기를 이용해서 세 번 증류한 후 3년 이상 저장 숙성시킨 것이다. 위스키의 제조 방법이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건너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리시 위스키의 전통은 오래됐지만, 그 생산량이나 판매량은 스카치 위스키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제일 유명한 아이리시 위스키는 제임슨(Jameson), 부시밀스(Bushmills) 등이다. 제임슨은 1780년부터 양조되기 시작했으므로, 그 역사가 236년에 이른다.

칵테일 상식 - 시리즈 5

아일랜드 사람들은 러시아인과 한국인처럼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커피에도 위스키를 타서 마신다. 아이리시 커피는 아이리시 위스키에 뜨거운 커피를 부은 다음 그 위에 크림을 얹은 음료로, 알코올이 금방 증발하는 것을 막으면서 커피와 위스키의 혼합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캐나디안 위스키(Canadian Whisky)는 라이(Rye:호밀)와 옥수수로 만든 위스키를 섞은 블렌디드 위스키이다. 그 원료가 아메리칸 위스키와 유사하나 그 제조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증류 직후에 블렌딩을 하기 때문에 같은 도수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도 비교적 그 맛이 가볍다. 같은 스카치 위스키라도 J&B나 커티삭이 탄 스카치의 맛에 비해 가벼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캐나디안 위스키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캐나디안 클럽(Canadian Club), 시그렘 VO, 시그렘 클라운 로얄(Seagram Crown Royal) 등이다. 아메리칸 위스키(American Whiskey)는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스키로, 버번(Bourbon)과 테네시(Tennessee) 위스키가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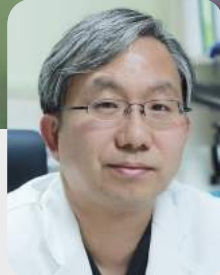
버번 위스키는 미국 켄터키주 버번 카운티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켄터키 위스키로도 불린다.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해 80도 이하로 증류한 뒤 화이트 오크의 안쪽을 불에 그슬려 만든 술통에 2년 이상 숙성시킨 술이다.

재료를 따른 구분이기는 하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버번 위스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메리칸 위스키를 버번 위스키라고 한다. 잭 대니얼(Jack Daniel's)처럼 테네시주에서 만든 위스키를 테네시 위스키라고 하지만, 모두 아메리칸 위스키에 속한다.

버번으로는 와일드터키(Wild Turkey), 짐빔(Jim Beam, 판매량 1위), 메이커스 마크(Maker's Mark), 노아스밀(Noah's Mill), 이반 윌리엄스(Evan Williams, 판매량 2위), 1792등이 유명하다.

〈CPA,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뉴스]



장진영 서울대병원
간담체외과 교수

모교 장진영 교수팀,
국내 최초 로봇 활용한
췌장종양 수술 실시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은 간담체외과 장진영(의대 88)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복강경 및 로봇 수술 장점을

[오피니언]



오세경 (약대 61)

올해 봄, 50년 만에, 모교를 방문하여 약 2개월간 체류할 기회가 있었다. 신설한지 10년이 되는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 달라는 모교 발전금 본부의 부탁도 있었고, 또, 내 남편의 장서를 중앙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을 계기로, 모교에서 의학학 역사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모교는 지난 50년동안 실로 괄목할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1960년도에는 유화수소 냄새가 나는 정성분석 실험은 군용으로 지어진 막사에서 했는데, 오후 5시가 지나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제때에 실험을 끝내지 못하면, 알코홀 램프를 켜서 시약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후배들이 최신식 건물 속에서 실험을 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대에는 약 800,000의 장서를 자랑하는 중앙도서관, 그리고 핵 폭탄에도 파괴할수 없이 지어졌다는, 우리 역사의 고서를 지니고 있는 규장각이며 곳곳에 숨어있는 최신식의 아름다운 건물들은 한국인의 막강한 건축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교정은, 미국이나 유럽의 고색이 창연한 전통적인 대학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MIT나 미국의 어느 주립대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넓은 잔디밭과 연못, 그리고 잘 배치된 landscape등도 멋지다. 포스코에 자리잡은 운동 시설도 미국의 어느 health club에 뒤지지 않았다. 4월에는 때마침 곳곳에 피어나는 개나리와 진달래, 그리고 라일락들이 교정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다.

단돈 1,000원이면 먹을수 있는 중식과 석식까지도 제공하는 구내식당, 그리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여러 식당들과 카페와 서점등을 볼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느낌이었다.

편 집 후 기
모처럼 동창회에 신바람이 불었다. 미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평의원들의 소리가 무더운 초여름날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1년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에 함뱍 웃음꽃이 피어난다. 이 열정이면 무언을 못할까?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나눔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이 '나눔나무'가 동문들의 정성으로 싹이 트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날을 상상하는 것 또한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가진 것이 많은 '설대사람들'인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평의원회의를 취재하고 사진찍고 서둘러 편지를 했다. 여러 편집위원들이 나서서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모교 대학신문에서 온 11학년 김지윤 인턴기자도 미국땅에 발을 딛자마자 맹렬한 활약을 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아, 안타까운 소식 하나. 25일 평의원회의의 만찬에서 가야금병창을 멋들어지게 연주한 한테라 (음대00) 동문이 그 이틀전 필라에 오기 전 뉴욕 Subway 샌드위치 집에서 18년간 분신처럼 함께하던 가야금과 노트북을 분실했다고 한다. 인간문화재의 작품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가야금이라는데... 편집장

췌장 및 담도에 발생하는 종양은 해부학적 수술이 어려워 복강경 수술이 극히 제한적이다. 췌십이지장절제술은 절제하고 남은 췌장관, 담도, 소장 등을 모두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이 높아 일부 전문의만 시행할 수 있다.

장진영 교수팀은 복강경과 로봇수술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술법을 도입했다. 다각도 접근과 여러 기구 사용이 용이한 복강경으로 빠르게 절제한다.

췌장관, 담도를 소장에 연결할 때는 로봇을 이용한다. 로봇 수술은 3차원 고해상도를 기반으로 10배 이상 확대 영상을 제공해 정교한 문합이 가능하다.

장진영 교수는 “로봇을 이용하면 개복 수술과 유사한 근치적 절제를 시행할 수 있고, 복강경 수술에 비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장기를 연결한다”며 “환자 빠른 회복과 미용적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2010년부터 국내 학자로는 처음으로 국제 췌장암 전구병변 및 췌장낭종 진료지침 수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미국췌장학회에서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자신문)

원래 서울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봉천동은 주민들이 가난한 곳이었어서, 담당구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인지, 아니면 약 30,000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군집해 있기 때문인지, 그 연유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을 두고 세계의 석학들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수 있을가를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소로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쓰레기 통에서는 장미가 필 수 없다”는 유럽인들의 조롱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런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나쁜의 문제가 아니었다.어느 택시 기사의 말에 의하면, 서울을 방문하는 미군들이, 그들의 코가 이런 악취에 절여진다고 불평한다고 한다. 사실상,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중국인들은 이런 문제에 개의치 않고 한국을 방문하지만, 일본사람들게는 한국은 가보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

한 사람의 피해자도 내지 않은 광우병 문제를 두고, 온 국민이 촛불 집회를 하며 반대한 수입산 소고기나, 300여명의 사망, 실종자를 냈다고 온 국민이 애도한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공 안전의 악점을 세계에 노출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당면하고 있는 이 악취의 문제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규모의 문제이다. 남한 사람들은, 이런 악취문제 뿐이 아니라도 이미 중국에서 오는 황사와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로 악영향으로 안질과 호흡기 질환등의 여러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이 미세 먼지가 신생아에게 소두뇌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 이런 악취문제 따위는 추후에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남한은 세월호 참사때 노출되었던 국가의 망신에 비교도 안될 큰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보스턴 의과대학 전직교수〉

267호 | 2016년 7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5



이달의 사진

Lago Peho에서 바라본 Torres del Paine의 산들 (남서쪽)

EXIF: Coolpix P510 ISO100 1/1600 sec F3.3 4.3 mm



칠레의 남쪽 Torres del Paine National Park을 방문해 트랙커들 사이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W Trek을 5일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특별한 형태의 눈덮인 산들, 코발트 색깔의 빙하 호수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산행 길, 거센 바람, Guanaco 무리들,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이영진 (공대 76)

Window 10 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나?



정태광 (공대 74)

많은 컴퓨터 초보자들과 동문들이 필자한테 물어 오는 질문이다.

윈도우 10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간이 작년 7월 말에 시작되어 이번 7월 말로 마감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약 200불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많은 컴퓨터 초보 동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몇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한다.

먼저, 윈도우10은 윈도우7과 윈도우8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새로운 운영체제이다. 윈도우7이 가정용과 사업용 컴퓨터를 겨냥하여 만든 운영체제라면 윈도우8은 Tablet과 스마트폰을 겨냥하여 만든 운영체제라 할 수 있다. 반면 윈도우10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및 Tablet에 모두 호환이 되는 운영체제이다.

필자가 느낀 윈도우10의 장점을 몇가지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작메뉴가 윈도우7 스타일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이다.
2. 메트로메뉴(사진)에서 데스크탑으로 들어가는 윈도우8과는 달리 데스크탑에서 메트로 메뉴를 열어 볼 수 있게 한 점이다.
3.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여러개의 가상 데스크탑에 그룹별로 열어놓고 옮겨가며 사용하게 되어 멀티태스킹이 훨씬 편해

이러한 몇가지 장점을 볼때 필자는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그리고 윈도우7을 사용해 왔던 사용자들은 윈도우10에 적응이 빠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메트로 메뉴



Charms Bar

다만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몇몇 중종 업체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윈도우10과 호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컴퓨터의 하드웨어 사양(메모리 양이나 CPU 종류등)이 윈도우10에서 요구하는 최저치를 넘지 못하는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피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입한지 5년이 안되는 컴퓨터는 업그레이드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컴퓨터의 프로세서로 보면 인텔 Core 2 Duo이상이면 괜찮을 것 같다.

업그레이드에 관한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을 통해 업그레이가 가능하고, 또 여러개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ISO파일로 DVD를 여러개 구워서 한꺼번에 여러개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한다.
2. 업그레이드에 걸리는 시간은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시간에

서 4시간정도로 잡으면 무난할 것 같다.

3. 업그레이드한 후에 잘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되는 경우,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검색하여 해결책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여 해결하도록 권장한다. 만일 그 프로그램이 사업용으로 중요한 것이면 소프트웨어업체에 문의하여 해결책이 나와 있는지 확인한다.
- 4.업그레이드후 새 운영체제에 만족하지 않으면 1달내에 언제든지 이전 운영체제로 복원이 가능하다.

윈도우10을 사용한지 1년이 안된 필자로서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몇개월 사용해본 결과, 윈도우7이나 윈도우8에 비해 크게 불편한 것이 없이 다만 모든 것이 한 단계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다.

〈편집위원〉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귌)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윤락(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중(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후원회 부회장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사회봉사 담당 부회장고문

윤상래(수의)제영혜(가정)하용출(문)황선희(공)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조직국장재무국장IT개발위원장

심희진(음)백옥자(음)이성숙(가정)김원영(미)

사업국장심외국장특별사업장사무장

한중희(공)박형준(공)허유선(가정)이제니

(Webmaster)

히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편집위원장편집위원

김정현(공)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 이상숙(가정)정덕준(상) · 정태관(공) · 이재원(사) · 한정민(농)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익(공) · 홍선례(음)

주필

편집/디자인

이혜림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고병철(법) · 김일환(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민경훈(법) · 유재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원(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이강원(공) · 이민연(법) · 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이원섭(농) · 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607	byeongk@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oinsurance.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중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NY/NJ/CT	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정태영(문리 71)	978,908,0196	chungty1@snuac.kr	Jul-Jun
	차기회장				
달라스 LA/DALLAS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송우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4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황효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최홍수(자연대 87)	858,342,0245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시카고 IL/IN/WI/MI	회장	정승규(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Jan-Dec
	차기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n_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W	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_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한민(공대 84)	425,444,3899	mmsft@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강창석(의대 73)	770,825,1004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이상엽(공대 85)	770,622,5163	duluthcpas2@gmail.com	
중북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최정웅(공대 64)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Jul-Jun
	부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윤기항(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sbaek2@utk.edu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mpcsg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장영준(농대 83)	913,544,2933	yjodds@gmail.com	
휴스턴 HOUSTON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통(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COTTMAN
Animal Hospital

Keep Your Pets the
Happiest and Healthiest
With Our Veterinary Services

Business hours:
Monday 10:00 AM - 12:00 PM, 4:00 PM - 7:00 PM
Tuesday - Friday 9:00 AM - 2:00 PM, 5:00 PM - 7:00 PM
Saturday 10:00 AM - 2:00 PM
Sunday Closed

215-745-9030
Fax: 215-745-3055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Pet Treatment

Surgical Services

Pet Dentistry

주기목 (수의 68)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Penn Asian is my happiness.

펜아시아이
제 행복입니다.

Penn Asian Senior Services
& Jubilee Adult Day Center

최정웅 (공대 64)

◆ Home Healthcare service offered in 12 Asian & English languages

◆ Bilingual Home Health Aide Training

◆ Certified Nurse Aide Training

◆ Health Insurance Enrollment Assistance

◆ Open Mon-Fri 7AM-6PM

◆ Nutritious hot meals

◆ Therapeutic & fun activities

◆ Free transportation

6926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 572-1234

www.passi.us

Facebook.com/pennasianseniorservices

서울대 동문 10% 할인

환자이긴
하지만 당신
기질은
환해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KISS®

“성장하는 기업”

25년간 세계 정상의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여러분과 함께 자녀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62) 신규천 (73) 한규상 (84) 김영훈 (93)

KISS® KISS PRODUCTS, INC.,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 www.KISSusa.com